

조선산업 분석과 전망

트레보트 리서치

treaboot@treaboot.com

www.treaboot.com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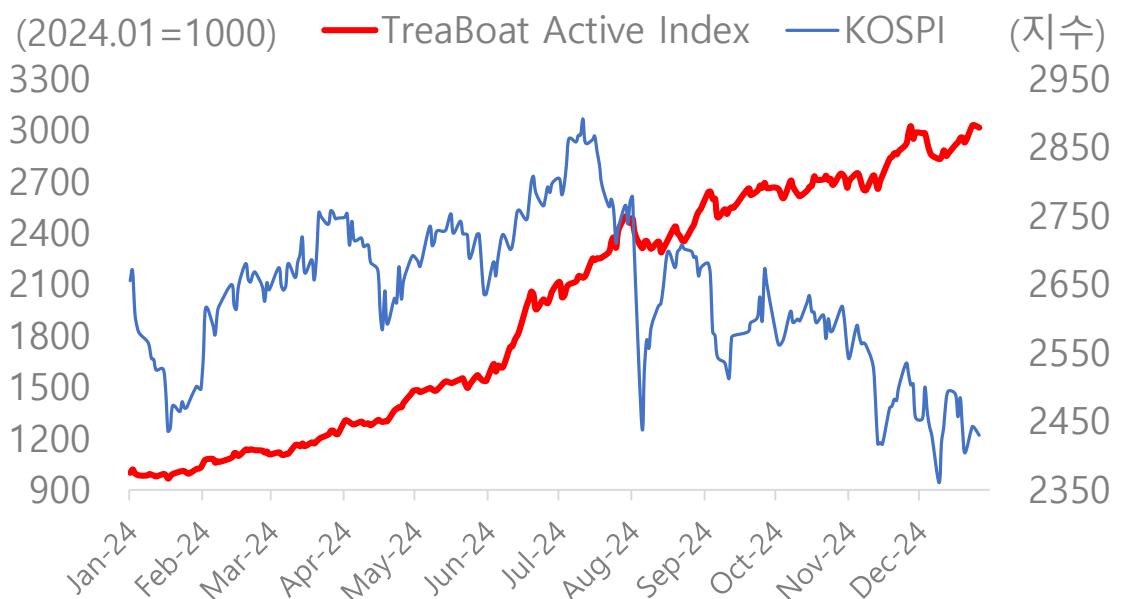
- 2007 ~ 2011 유화증권 리서치센터(자동차/조선/기계 애널리스트)
 - 2011 ~ 2014 LS증권 리서치센터(조선/기계 애널리스트)
 - 2014 ~ 2021.07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조선/기계 애널리스트)
 - 2021.09 ~ 2023.08 (국)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 2021.07 ~ 트레보트 리서치 창업 www.treaboot.com



2025 트레보트 인덱스 – KOSPI 179.6% 아웃퍼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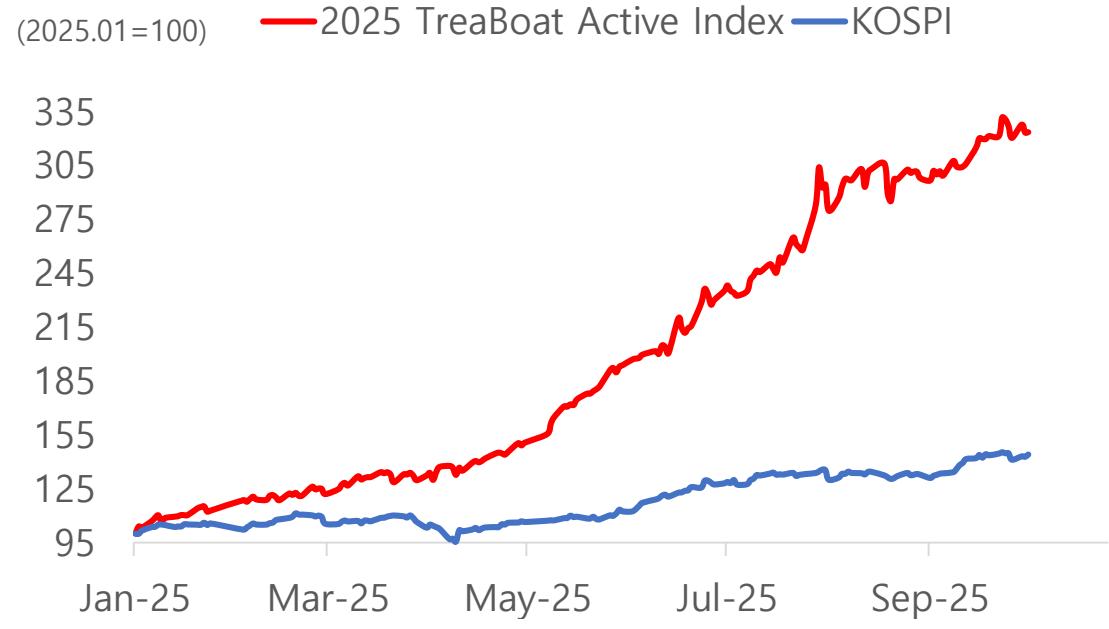
- 경제 분석가 특히 금융 전문가라면 **분석 능력은 투자 수익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글로벌 매크로와 해외 180개 기업들의 움직임을 국내 160개 기업과의 연관성 **수학 모델 분석/평가**
- 2024 트레보트 인덱스 KOSPI 210.0% 아웃퍼퓸/ 2025 트레보트 인덱스 KOSPI 179.6% 아웃퍼퓸**

2024 트레보트 인덱스(+201.54%)와 KOSPI(-8.5%) 절대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2025 트레보트 인덱스(+223.65%)와 KOSPI(+44.02%) 절대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
- I.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영향
 - II. 조선업 전망은 조선소가 아닌 선주들이 만든다
 - III.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조선업
 - IV. LNG 운송 사업은 돈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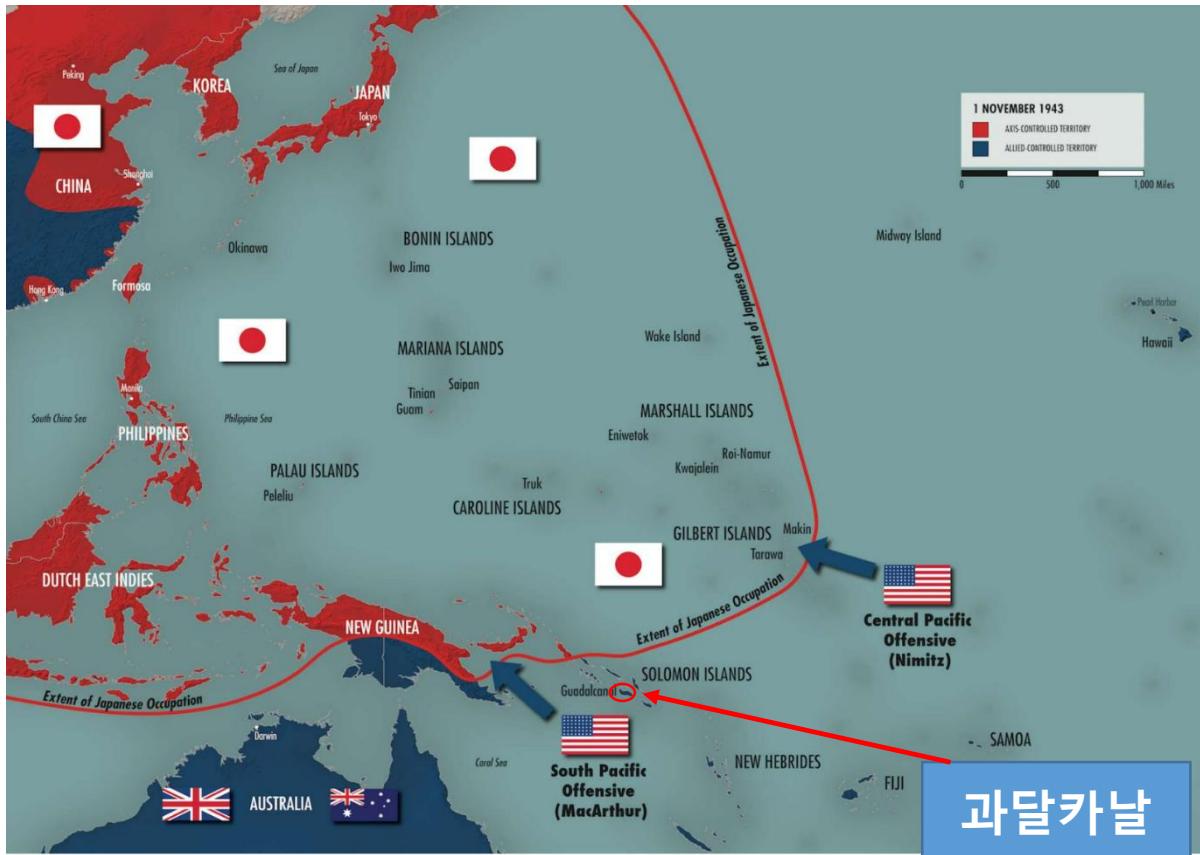


I.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영향



태평양 전쟁 과달카날 후퇴와 유사한 친환경 시장

- 미드웨이 해전 패배 이후 일본의 석유 자원 고갈
- 과달카날 섬 포기하면서 일본의 태평양 방어선 해제
- 메탄올/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부족과 유사



World War II: Japan and Oil (193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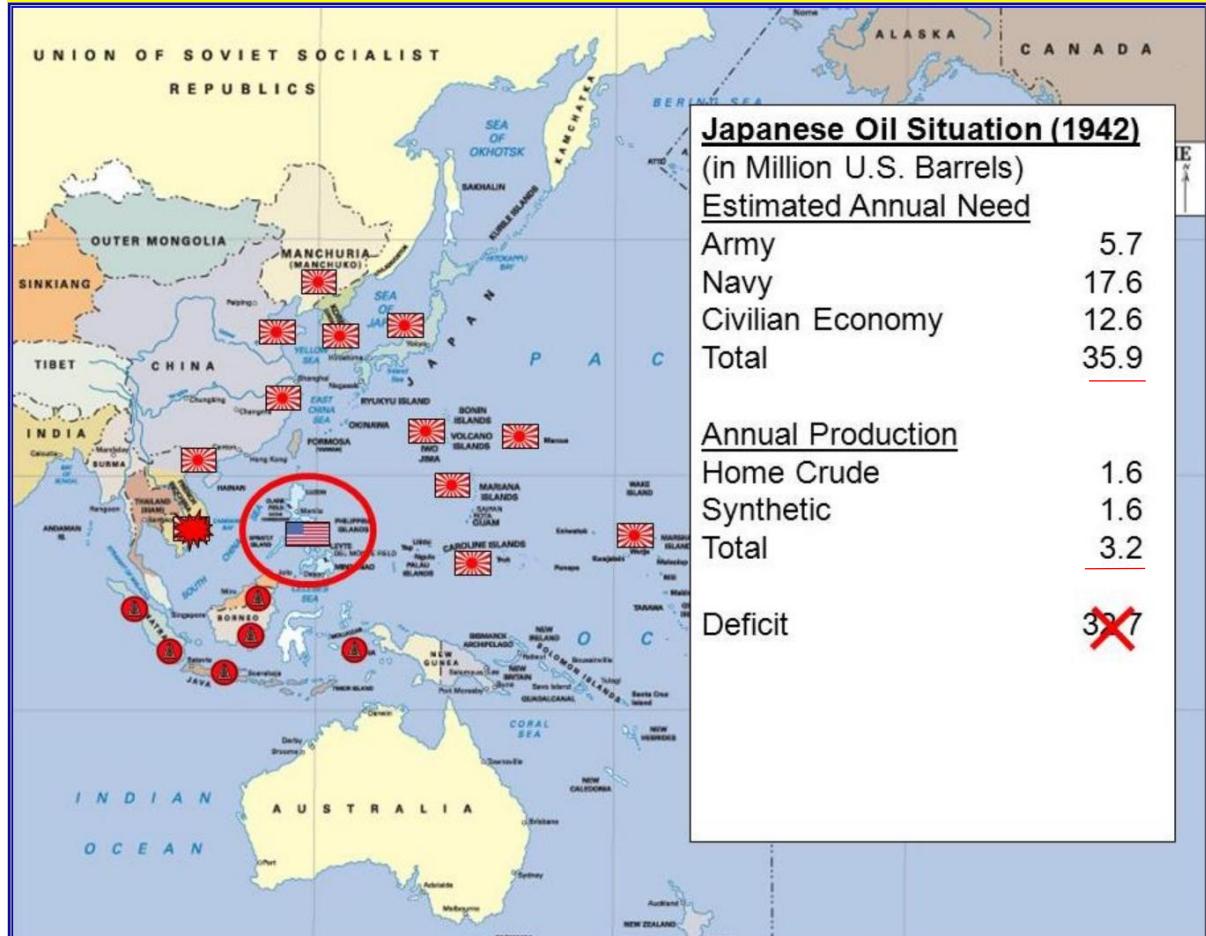


Figure 1--Japan was almost completely dependent on imported oil for its economy and military. And most of those imports came from America. The map here says it all. First notice how French Indo China was essentially a pistol pointed at the oil fields of the Southern Resource Zone (SRZ). Worst still for the Japanese, the American Philippine Islands stood

헐리웃 영화와 프로파간다(정치적 선전)

- 2023년 미션 임파서블 7에 **석탄** 기관차 등장
- 2023년 영화 2차 대전 핵개발 **국가경쟁**의 오픈하이머



해외 주요 인물들은 동아시아 전쟁 상황 대비

- 국제 평화 조약과도 같은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

워런 버핏은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한다 "영원히 생존할 기업들"

입력 2023.04.12 16:21 수정 2023.04.12 16:43 | 23면

최진주 기자



3

0

일본 방문해 니혼게이자이·아사히 인터뷰
"대만 TSMC 매각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오마하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朝鮮日報

조선경제 > 경제 일반

美전문가들 “대만 전쟁땐 한반도 휘말릴 수도…”

[제14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워싱턴 선언 이후 동북아는 어디로

노석조 기자 김휘원 기자

업데이트 2023.05.18. 09:11

가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7일 “한미 정상이 북핵 대응책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 했지만, 앞으로 대만해협 위기 등 각종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것”이라며 “한미가 우방국과 연대해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드워 풀너(가운데) 미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가 17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미 외교정책과 2024년 대선'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풀너 창립자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왼쪽은 존 험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오른쪽은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김지호 기자

탄소중립: 유럽의 기축통화 경쟁 수단

CNN Regions | U.S. Politics | Money | Entertainment | Tech | Sport | Travel | Style | Health | Video | VR

US QUILTS CLIMATE PACT



'We don't want other countries ... to laugh at us anymore,'
Trump says

Top CEOs to Trump: You're wrong to quit Paris accord

Gergen: One of the most shameful acts in US history

Opinion: Trump should think about how history will remember him

Skeptical: Hear Trump say that climate change isn't real ☺

Paris deal: What it will look like without US



가난해진 유럽: 탄소 중립 정당성 흔들리다

국제

근로시간 줄이고, 강성노조 특세하더니… 유럽경제 이끌났다

김상준 기자 kim.sangjun@mk.co.kr

입력 : 2023-09-12 22:24:30

가   



[사진 = 빙상배이]

세계 경제를 떠받드는 두 축인 미국과 유럽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동시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고물가 파고에 여전히 휩싸이면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특단의 체질 개선을 마련하지 않는 한 미국과 유럽 사이 경제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전망이다.

전기차의 부진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재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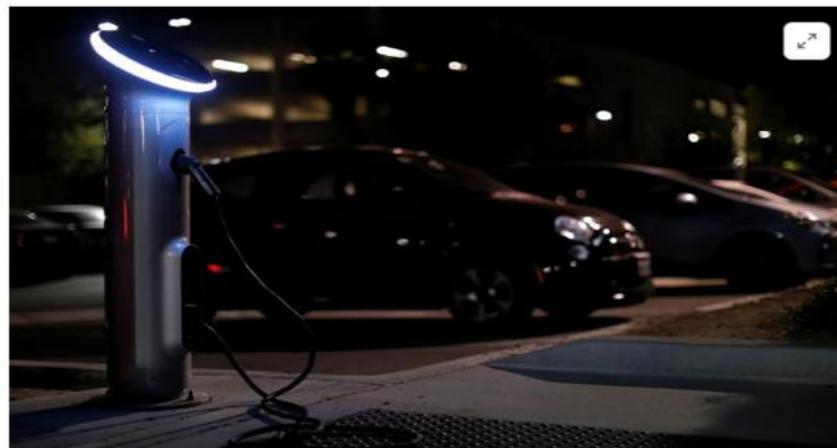
REUTERS® World ▾ Business ▾ Markets ▾ Sustainability ▾ Legal ▾ Breakingviews ▾ Technology ▾ Investigati

Climate & Energy | Environment | Sustainable Markets | Climate Change | Regulatory & Policy

White House opposes bill to strip California of vehicle emissions authority

By David Shepardson

September 13, 2023 8:46 AM GMT+9 - Updated a day ago



[1/2] A charging station for electric vehicles is pictured in Pasadena, California, U.S., August 7, 2017. REUTERS/Mario Anzuoni [Acquire Licensing Rights](#)



Compani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ollow

WASHINGTON, Sept 12 (Reuters) - The White House on Tuesday said it strongly opposes a Republican bill set to be voted on this week b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would prevent California from receiving federal waivers to set standards limiting the sale of new gas-powered motor vehicles.

The bill faces long odds of winning approval in the Senate, where Democrats have made boosting electric vehicles a top priority. But it might pick up some Democratic support in the House, and the future of cars could be a potent political issue in the 2024 election for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Automobiles [+ Add to my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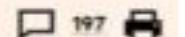
European carmakers bet on a future with e-fuel vehicles

Use of alternative fuels will allow companies to keep selling combustion-engine models into the next decade, say executives



A Greenpeace activist protests at the International Motor Show in Munich on Tuesday. Critics of so-called e-fuels fear they will delay EU plans to phase out the combustion engine by 2035. © Anna Szilagyi/EPA-EFE/Shutterstock

Patricia Nilsson and Peter Campbell in Munich SEPTEMBER 6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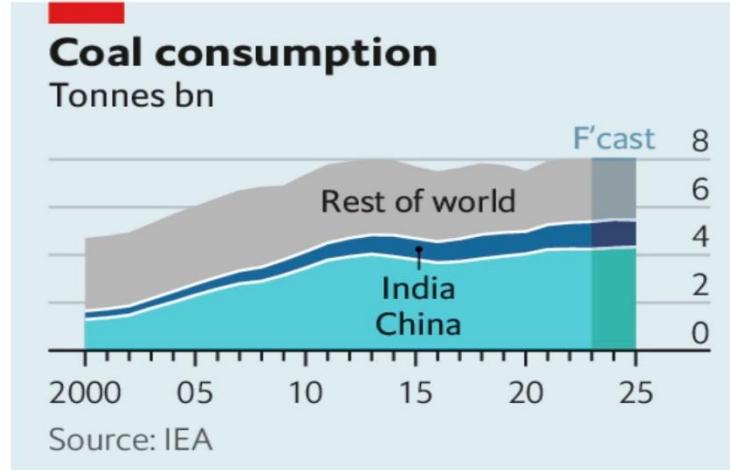


LNG 시황 둔화와 라이벌 석탄의 부활

Leaders

Climate finance The struggle to kill King Coal

*Financial tools alone cannot stamp
out the world's dirtiest fuel*



IN NOVEMBER 2021, at a UN summit in Glasgow, the world's leaders declared to much fanfare

China's new coal plant approvals surge in 2022, highest since 2015 -research

Reuters

February 27, 2023 10:01 AM GMT+9 · Updated 3 months 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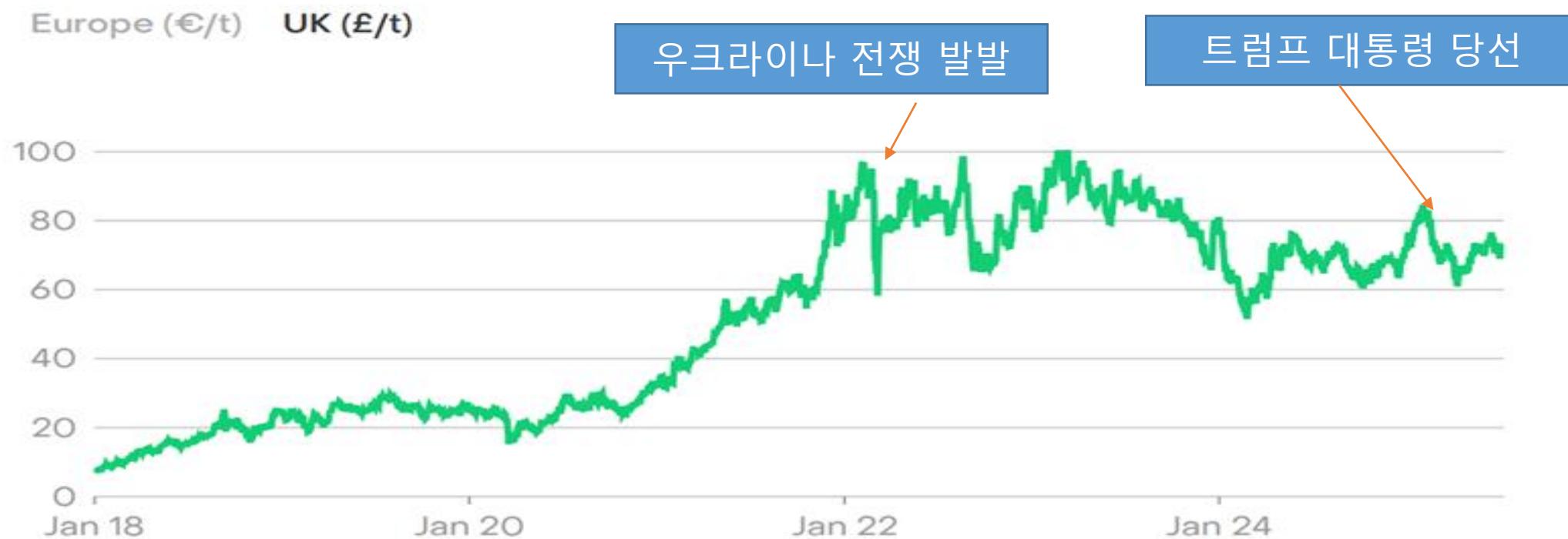
A coal-burning power plant can be seen behind a factory in the city of Baotou, in China's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October 31, 2010. REUTERS/David Gray/File Photo

SINGAPORE, Feb 27 (Reuters) - China approved the construction of another 106 gigawatts of coal-fired power capacity last year, four times higher than a year earlier and the highest since 2015, driven by energy security considerations, research showed on Monday.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탄소 가격 하락세

- 탄소중립, 친환경은 국제사회의 평화조약과도 같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평화의 시대,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사건: 국제무역은 위축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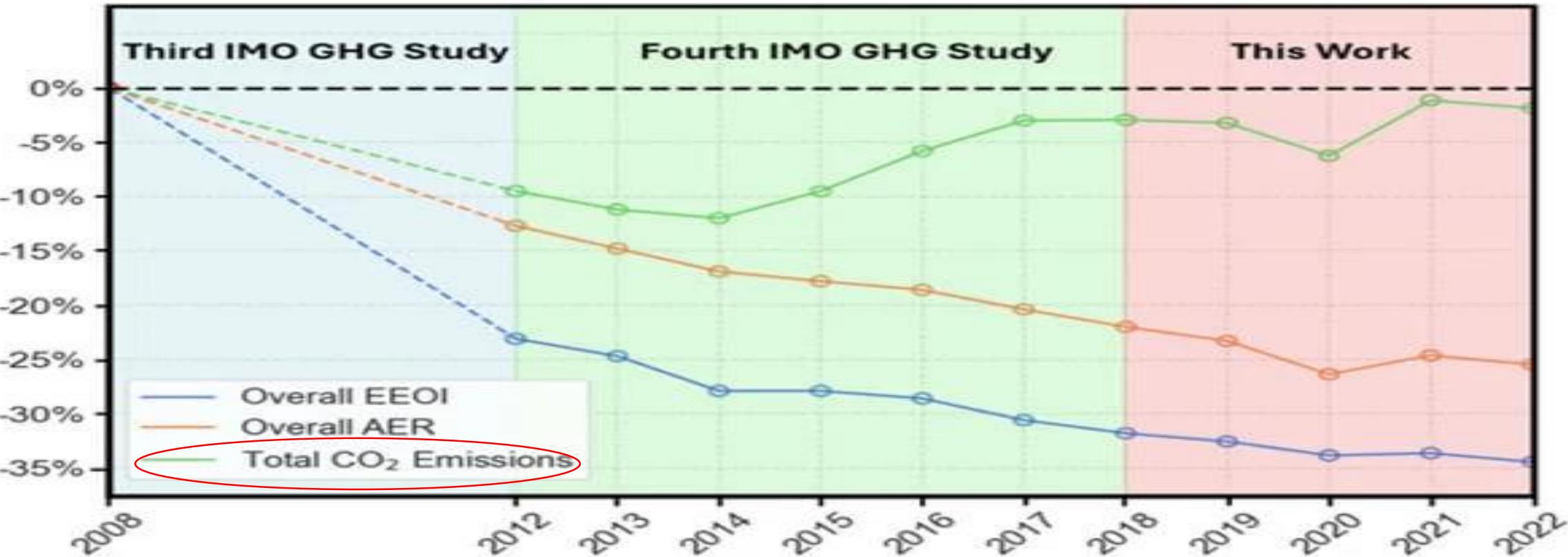
Cost per tonne of carbon dioxide produced



아무도 지키지 않는 탄소 중립

- 해운업계 CO₂ 배출량은 다시 2008년 수준으로 증가

**Change in Total CO₂ Emissions and Carbon Intensity
in International Shipping from 2008-2022**



미국선급(ABS) 대표, IMO 규제의 비현실성 인정

'IMO needs to take a timeout': ABS joins US resistance to Net-Zero Framework ahead of key vote

Classification society's CEO says more thought is needed for global carbon regulation



Christopher Wiernicki is chief executive of American Bureau of Shipping. (Photo: TradeWinds Events)

- 미국선급 대표는 지난달 런던에서 개최된 해운포럼에서 메탄올,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 생산량 부족을 강조
- 미국 선급 대표는 초저황유(VLSFO) 가격을 기준으로
 메탄올 연료는 2-4배 더 비싸고
 암모니아 연료는 3-8 배 더 비싸다고 강조
- 대체연료 생산량의 불확실성과 높은 연료 가격으로
 IMO 규제는 비현실성이 크다고 강조

1200척 선박의 메이저 선주 연합 IMO 규제 반박

Shipowners Frontline, Bahri and more unite to express 'grave concerns' with IMO carbon deal

Group demands key amendments before adoption at October meeting



The 317,700-dwt tanker GHAZAL (built 2019) is controlled by Bahri, Saudi Arabia's biggest shipowner. (Photo: Piet Sinke/CC BY-NC-SA 2.0)

Eric Priante Martin
TradeWinds US bureau chief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과
그리스 선사 마란가스, 다이나콤, 다이나가스
사우디 국영선사 바흐리와 한국의 한화쉬핑 등
1,200여척 규모의 선주 연합은 IMO 규제 일제히 반박
- IMO 규제는 공정한 해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선주들이 강조
- 여전히 신조선박의 추진연료와 기술사양은
벙커유+스크러버가 대세인 것이 현실

결국 IMO 탄소세 도입 중단 결정

- IMO 탄소세 결정은 1년후로 연기, 하지만 **사실상 도입 중단 결정**



IMO fails to agree Net-Zero Framework, pushes talks to 2026

Adis Ajdin · October 18, 2025

0 1,975 2 minutes read

Negotiations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ve broken down without agreement on the Net-Zero Framework, leaving the shipping industry facing another year of uncertainty over how its decarbonisation will be regulated.

오일 메이저들은 암모니아 연료 배제

Shell rules out ammonia – for now – as alternative marine fuel in decarbonisation report

All Hands on Deck 2.0 report says persistent safety concerns about ammonia have yet to be overcome

01 Jun 2023 | NEWS



by [Michelle Wiese Bockmann](#)

@Michellewb_

michelle.bockmann@lloydslistintelligence.com

Oil major says liquefied natural gas is the leading near-term alternative fuel to replace heavy fuel oil, which along with methanol ‘preserves longer-term options’

MAERSK LINEE도 바이오 연료 투자

Maersk Growth invests in Danish biofuel producer

GREEN MARINE

April 27, 2023, by Jasmina Ovcina Mandra

Maersk Growth, a venture arm of industry major A. P. Moller – Maersk, has together with VÅR Ventures, invested in Kvasir Technologies, a Danish technology company developing a proprietary technology for the production of carbon-neutral biofuel from non-edible biowaste material.

MAERSK LINE, 바이오 연료 사용량 3배 증가

Maersk said that the use of biofuels tripled in 2022 when compared to 2021, driven by the increased uptake of Maersk's EcoDelivery ocean product, which involves the utilization of sustainable biofuels on selected company vessels to cut emissions.

The Danish major believes that methanol is the only scalable green fuel option this decade as it can be safely used and it is relatively easy to handle. But, it will take time to reach a sufficient scale to cover the demand, so an alternative 'drop in' fuel is necessary to fill the gap: biodiesel.

IMO 2020 이후에도 여전히 벙커유가 주류

- IMO 2020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벙커유+스크러버 장착이 선박 추진의 기본
- 조선업계에서는 아직도 무의미한 LNG/메탄올/암모니아 Ready를 강조
- 선박 수요 전망과 기술 사양은 조선소가 아닌 선주가 결정하는 것
- 정기운항 선박에서만 제한적으로 LNG추진이 진행
여전히 벙커유 사용 선박이 대세
- IMO 규제로 인한 선박 교체 수요 전망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

선주들은 환경 운동가가 아니다 – 경제성이 중요

- 10여년전 Eco-ship 싸이클의 경제적 유인

같은 벙커유를 사용하지만 연료 소모량이 30-50% 절감

선박 운항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 소모량 감소는

선박 운항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 선주들의 신조선 투자 유인 높다

- LNG/메탄올 추진선 등은 경제성이 없다

선박 연료 비용이 3배 이상 높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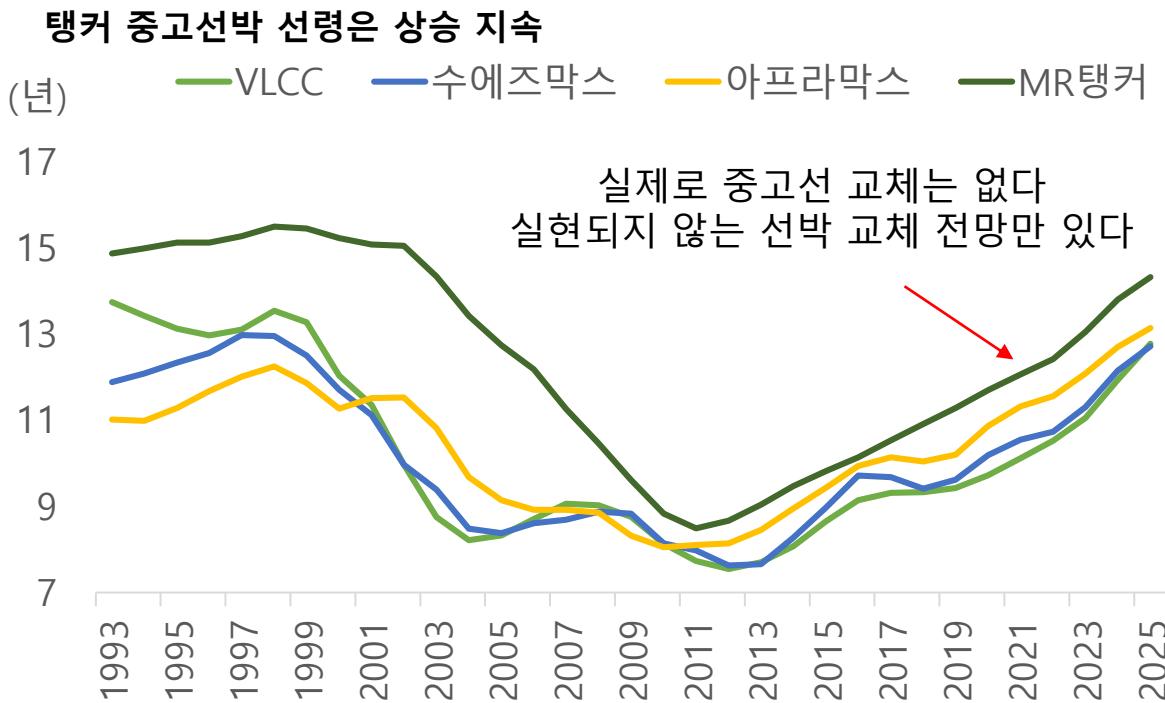
주요 항구에서 연료 벙커링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신조선 투자 비용도 20% 가량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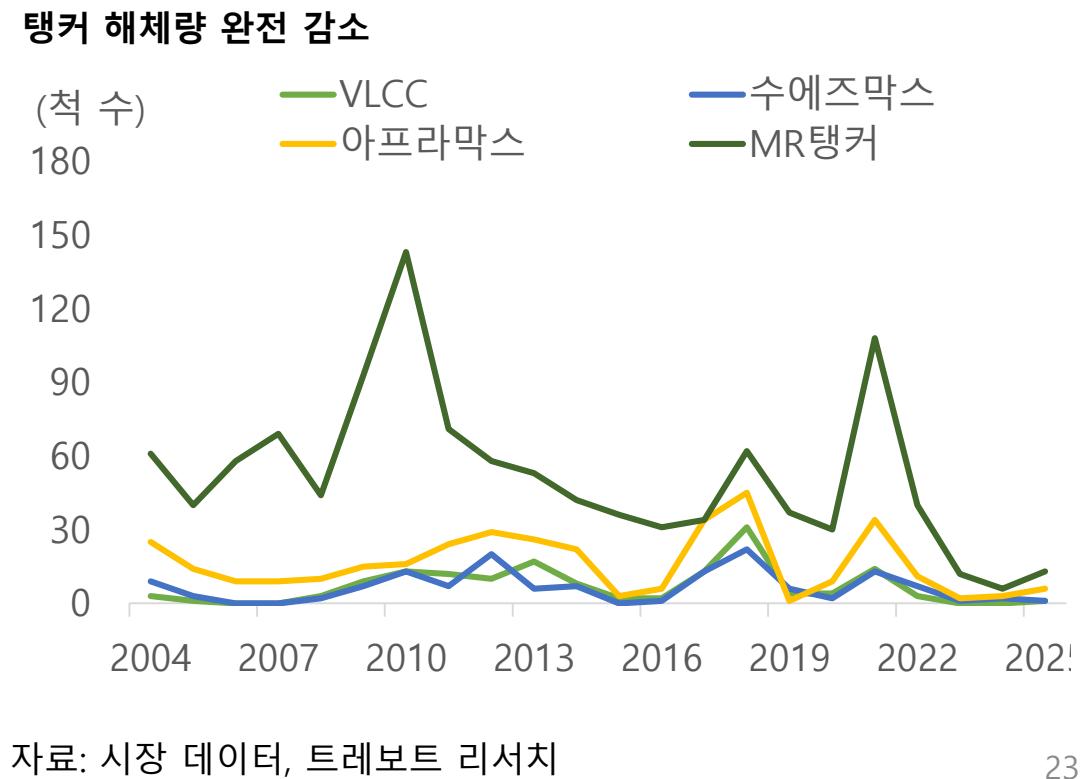
선박 운항의 경쟁력이 낮아진다 -> 선주들의 신조선 투자 유인은 적다

중고선 해체와 신조선으로의 교체는 없다

- 중고선 내연기관을 개조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선박 연료의 등장으로 중고선 내용연수 증가
- 바이오 연료는 벌크선에서부터 크루즈선, LNG선의 연료로 사용
- 탱커 중고선 교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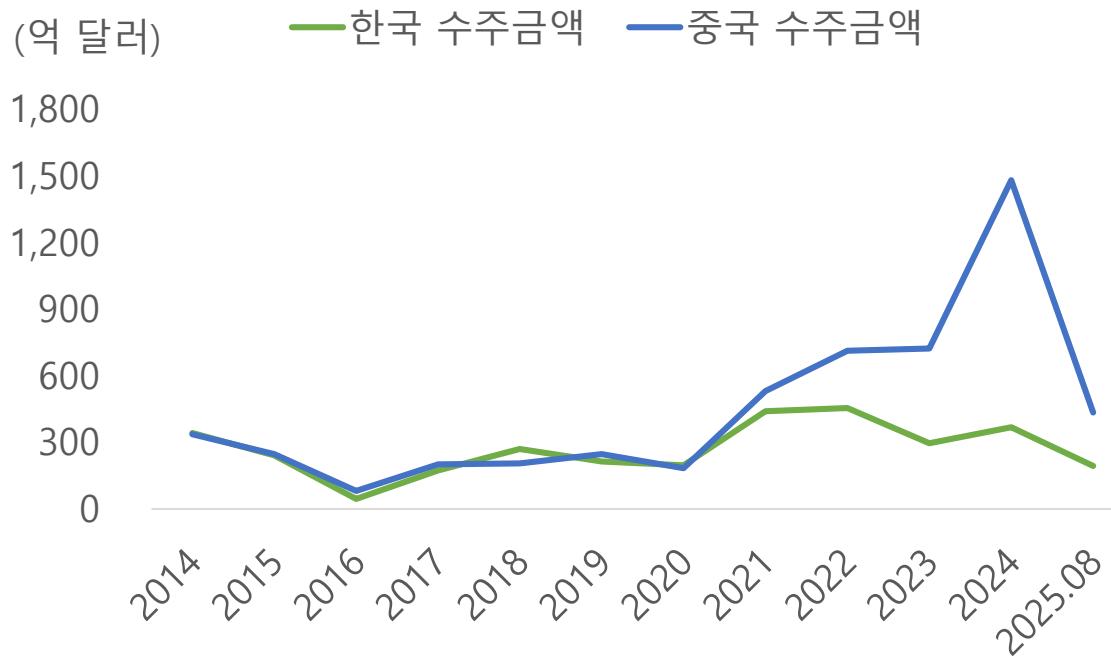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선주들은 중국 선박 그리고 중고선을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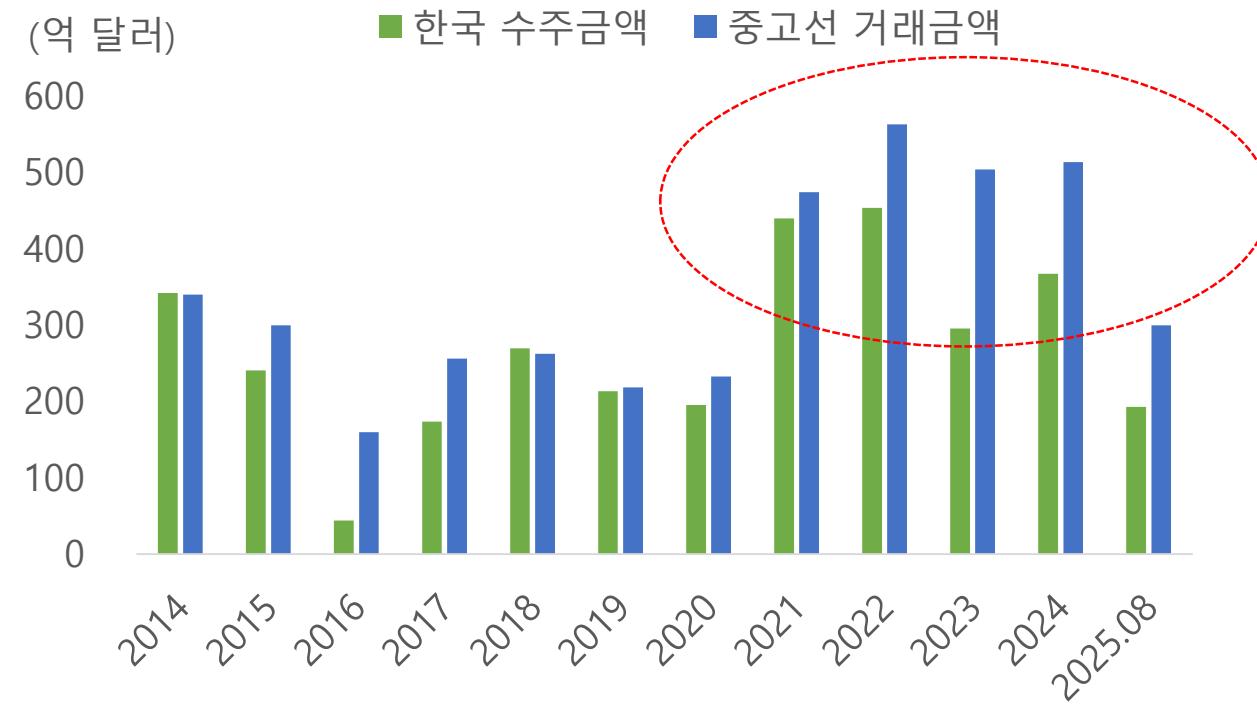
-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고선 시장은 연간 500억 달러 상회
- 경기가 가장 좋았던 2007년 중고선 시장 437억 달러
- 2020년 이후 메이저 선주들의 중국 조선소 선박 주문이 집중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선박 주문 늘리고 있다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고선 시장은 한국 수주금액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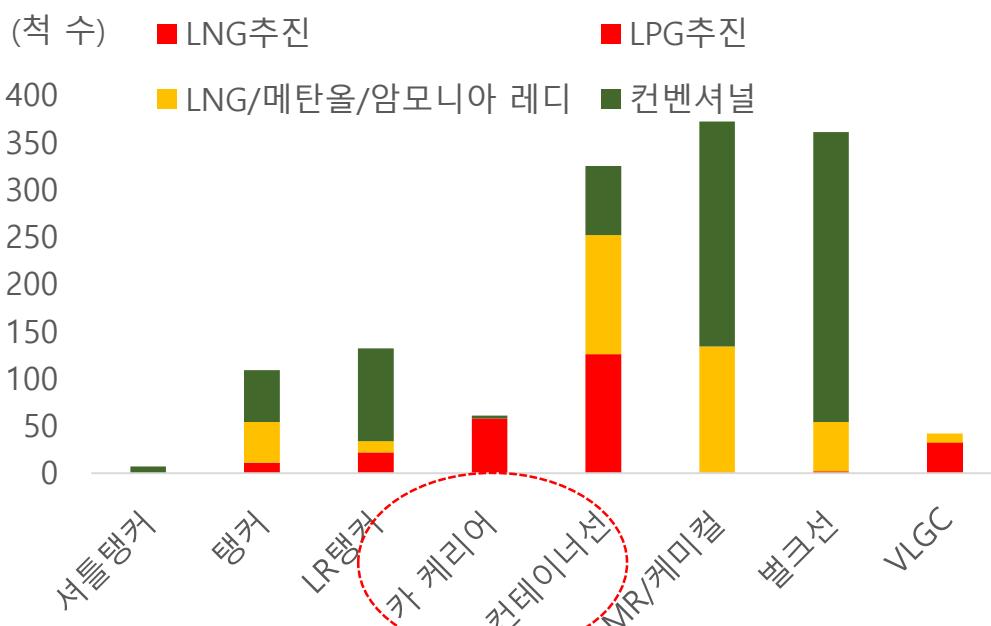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 조선업은 2중연료 선박 시장 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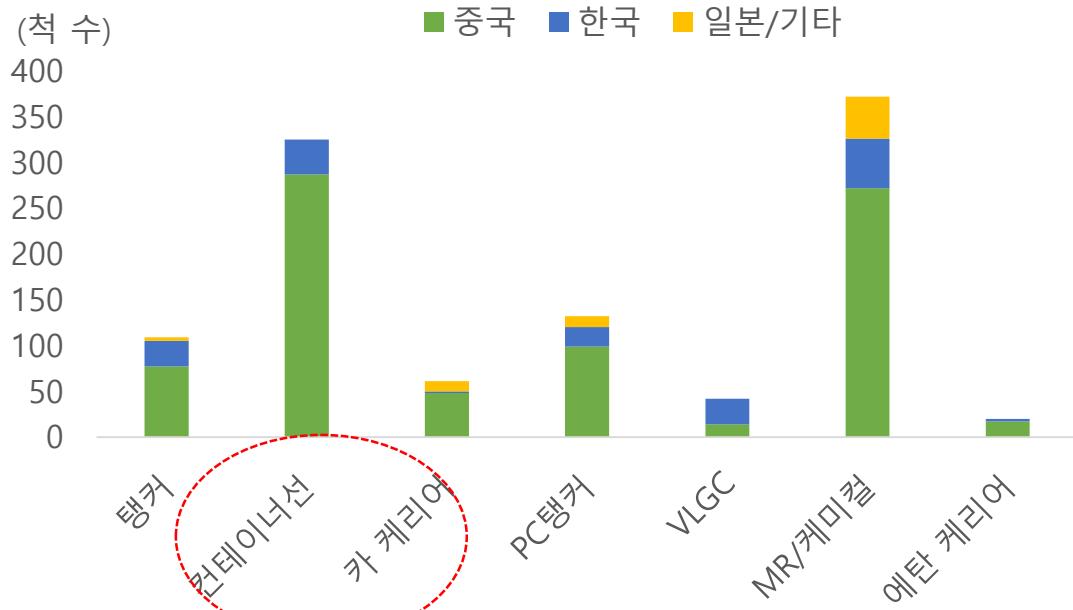
- 2중연료 선박은 정기 운항 선박 중심의 제한적인 시장 형성
- LNG선 제외한 모든 선종에서 중국의 수주 지배력이 매우 높다
- IMO 2020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LNG/메탄올 Ready를 강조

2024년 수주 선박의 추진기술 사양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2024년 국가별 선박 수주실적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II. 조선업 전망은 조선소가 아닌 선주가 만든다



조선업과 해운업 패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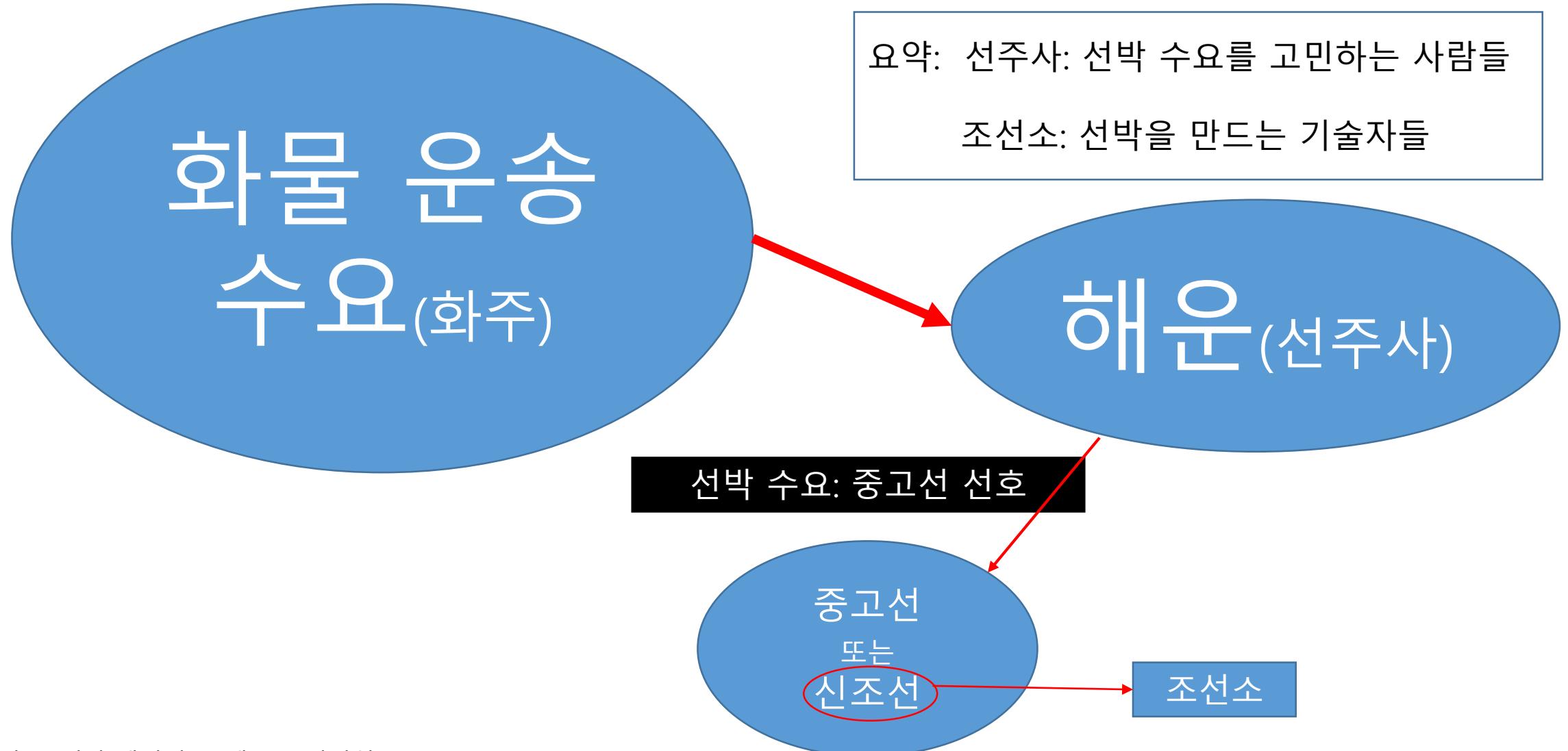
- 조선업 패권의 변화

영국(유럽) : 50-70년 -> 일본 : 80-90년 -> 한국 1990-2020 -> 중국 2020 ~

- 해운업 패권의 변화

그리스 : 1950년대 이후 계속

선박 수요와 조선업 전망은 선주들이 만든다



III.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조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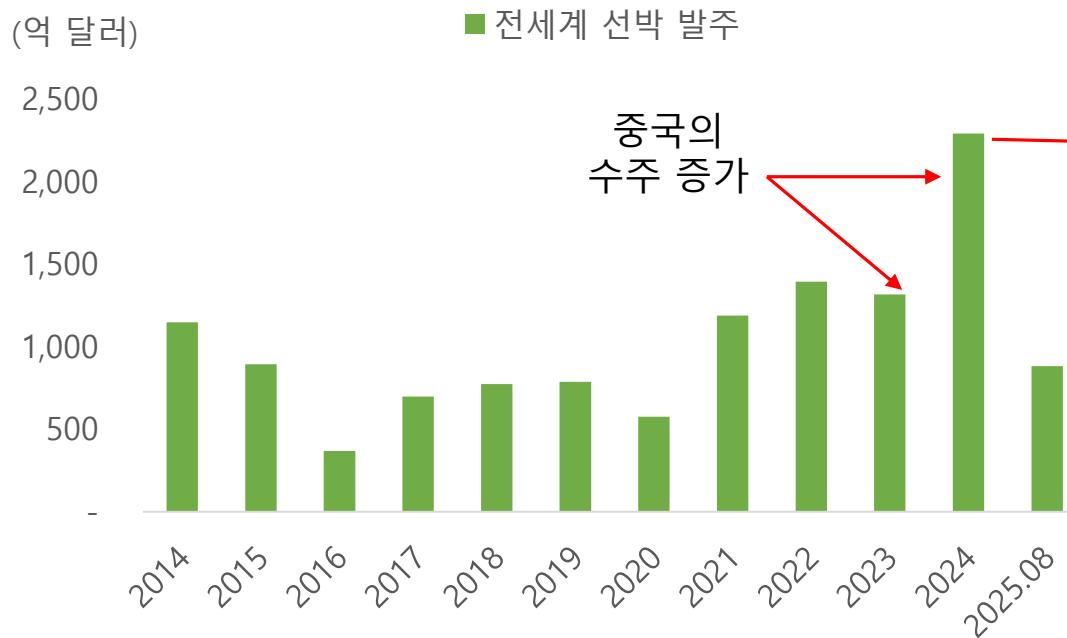
: 3대 지표(수주, 수주잔고, 인도)와 선박금융 모두 중국이 주도



세계 조선업의 무게 중심은 중국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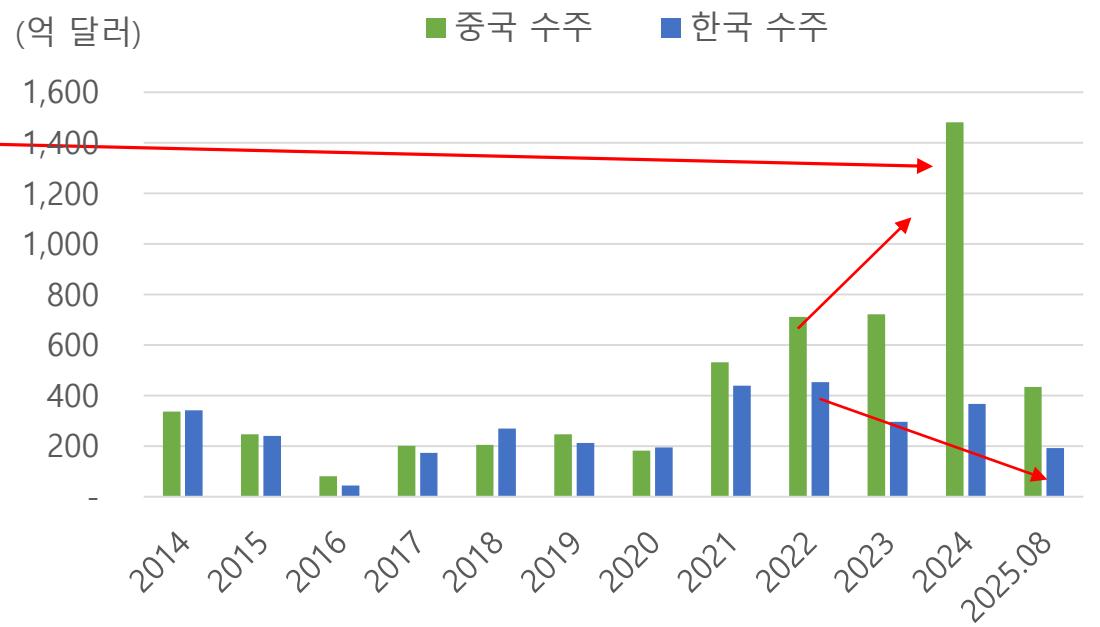
- 2024년 6월 카타르 2차 계약 종료 후 선박 발주량 급격히 감소
- 한국 조선업이 카타르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사이 중국의 (컨테이너선, 탱커, 카 케리어) 선박 수주량 급증
- 2023년 5월 크레딧 스위스 파산 이후 중국의 선박 금융 지배력 확대

전세계 선박 발주량 동향과 중국 조선업 수주량 급증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의 수주량은 한국의 수주량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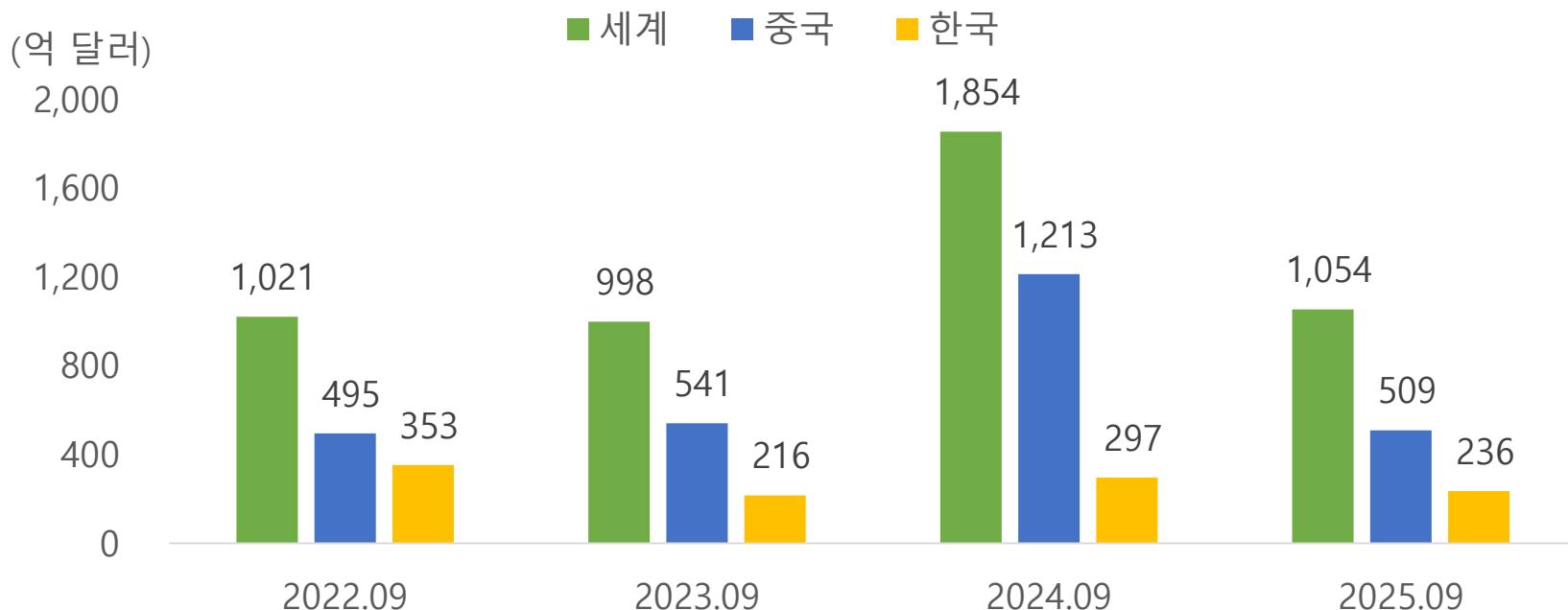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한국 조선업 수주실적 감소

- 최근 4년간 선박 수주실적을 비교하면 한국의 수주 감소폭이 중국보다 크다
- 세계 선박 수주 시장에서 중국 조선업은 완전한 주도권을 확보
- 2022년 이후 중국의 수주실적은 견조, 한국은 감소 추세

최근 4년간 수주실적 비교(9월 누적)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선박 금융의 무게 중심은 중국으로 이동

- 그리스 선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크레딧 스위스** 파산,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해양금융 중단
-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서방 국가 은행들의 선박해양금융 중단되면서 선박 투자 위축
- 중국의 선박금융 지배력 높아지면서 **중국 조선소들의 수주 점유율 증가**

세계 상위권 은행은 모두 중국 은행

TOP 10 WORLD BA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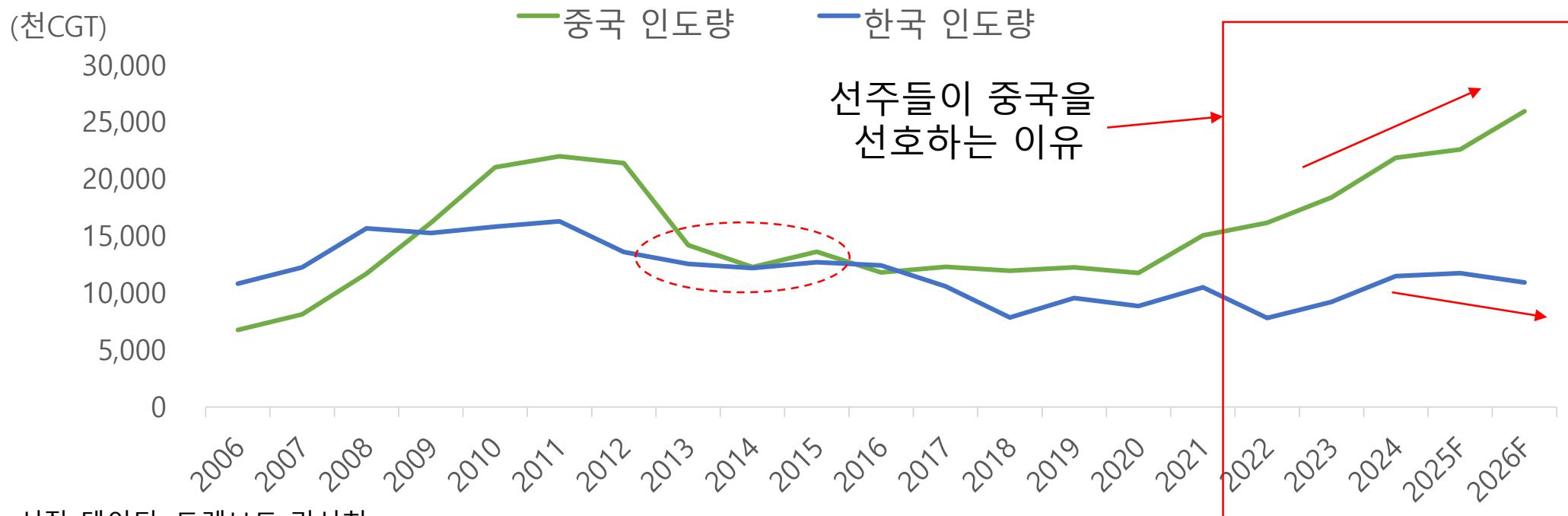
Rank	Previous	Bank	Country	Tier 1 capital \$bn
1	1	ICBC	China	338
2	2	China Construction Bank	China	287
3	4	Agricultural Bank of China	China	243
4.	3	Bank of China	China	230
5	5	JP Morgan Chase	US	209
6	6	Bank of America	US	189
7	7	Wells Fargo	US	168
8	8	Citigroup	US	158
9	10	HSBC	UK	147
10	9	Mitsubishi UFJ	Japan	146

Source: www.thebankerdatabase.com

중국 조선업 생산성 향상

- 조선업 경쟁력의 핵심은 정상 인도 능력
- 중국 선박 인도량은 한국과 격차를 벌리며 증가: 한국 인도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한화오션은 2024년 선박 인도지연 공시만 8차례 발표(생산인력 문제 등)

한국과 중국의 선박 인도량 비교(20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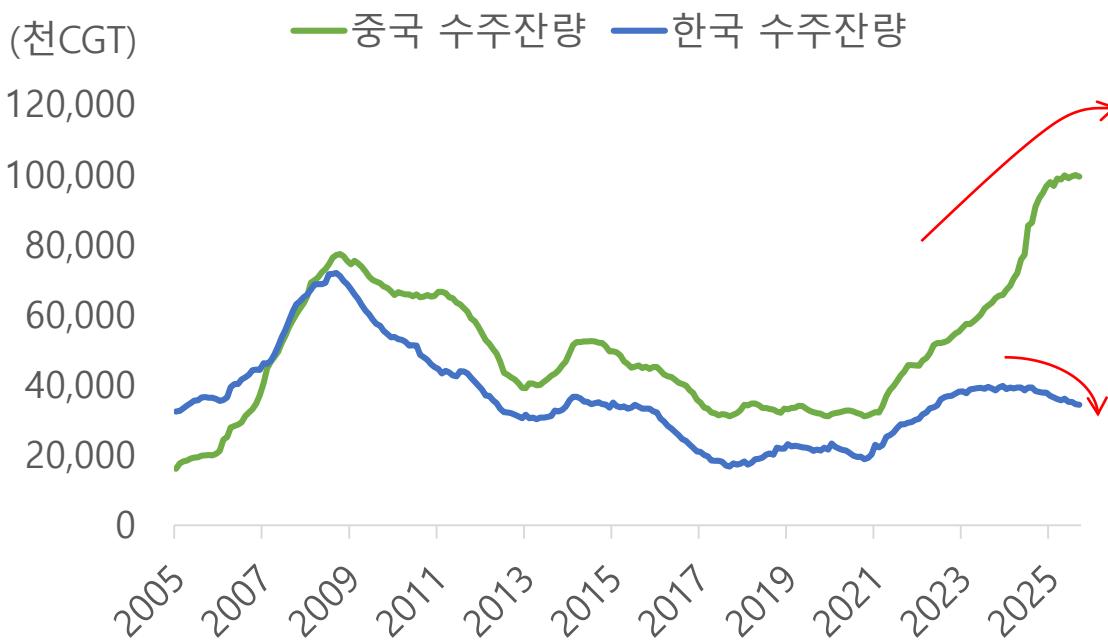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한국의 수주잔량은 22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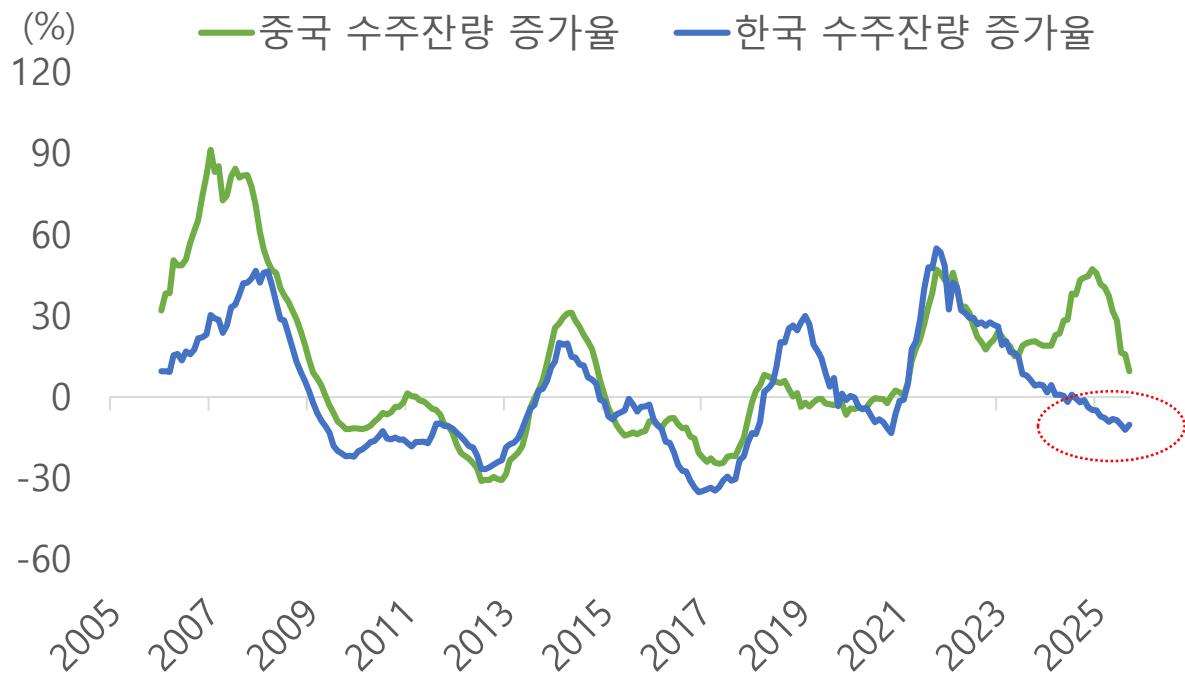
- 중국 조선업 수주잔량 증가율 10% 이상 유지, 한국 수주잔량은 10% 이상 감소
- 카타르 계약 종료 되면서 한국 조선업 수주잔량 증가율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 수주잔고 줄어들수록 선가는 약세

한국과 중국의 선박 수주잔량 비교(2025.09)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과 한국의 선박 수주잔량 증가율 비교 (20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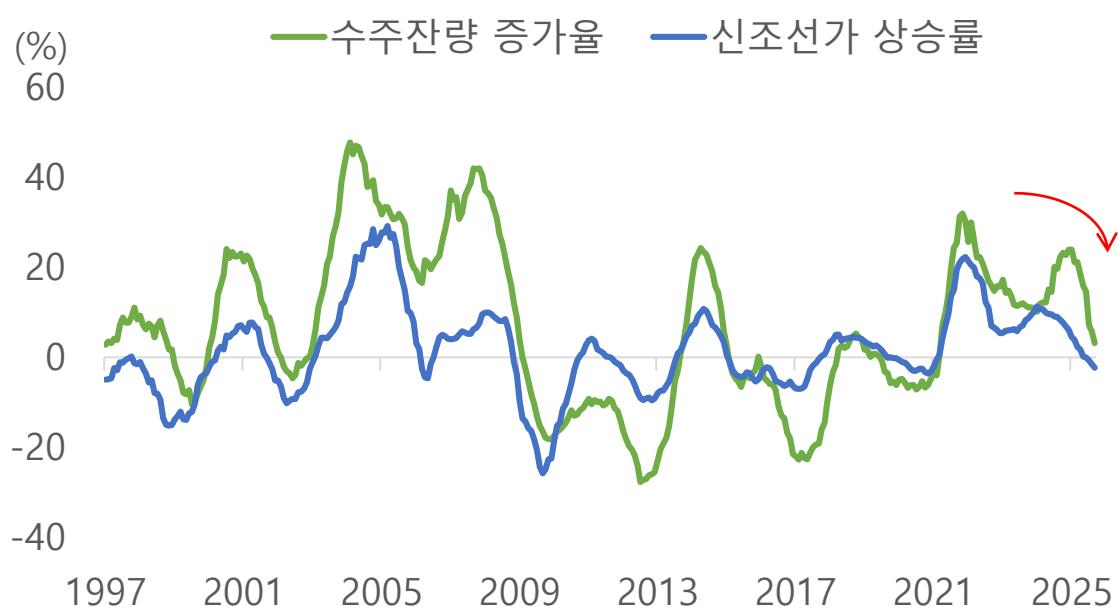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수주잔량 줄수록 조선소 목소리는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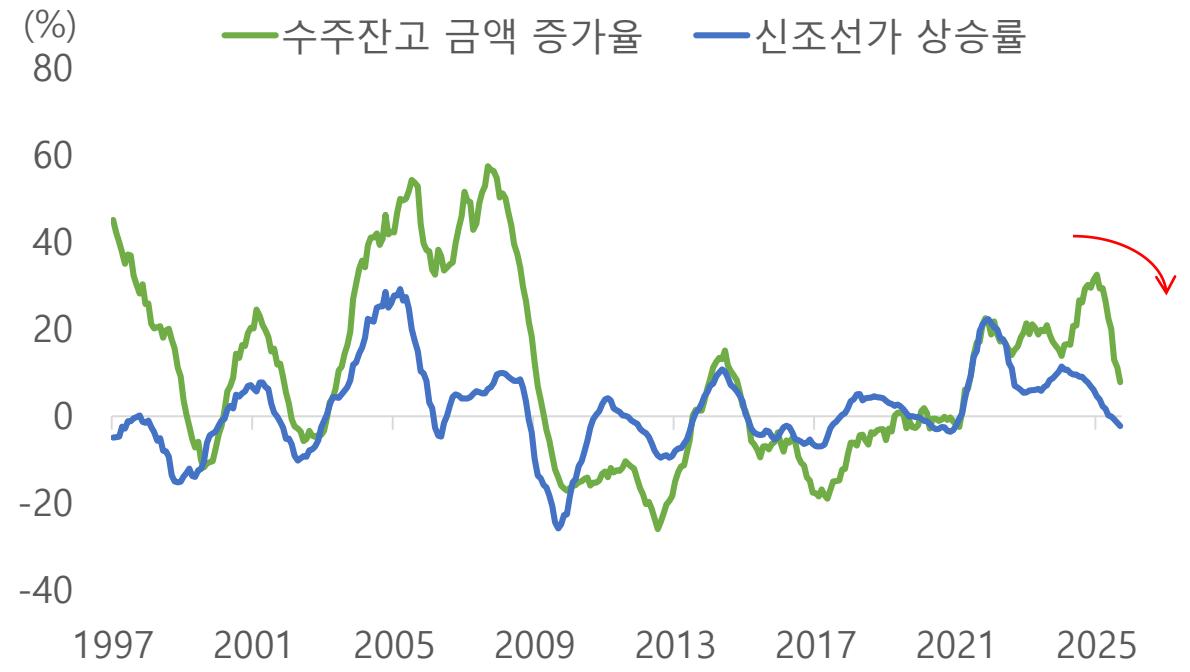
- 선가 움직임은 수주잔고 증가율에 연동
- 글로벌 수주잔고 줄면서 선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전환
- 수주잔고 늘수록 조선소의 목소리 높아지고, **수주잔고 줄수록 선주 목소리가 높아진다**

글로벌 수주잔고 증가율과 선가 상승률 비교(2025.09)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글로벌 수주잔고 금액 증가율과 선가 상승률 비교 (20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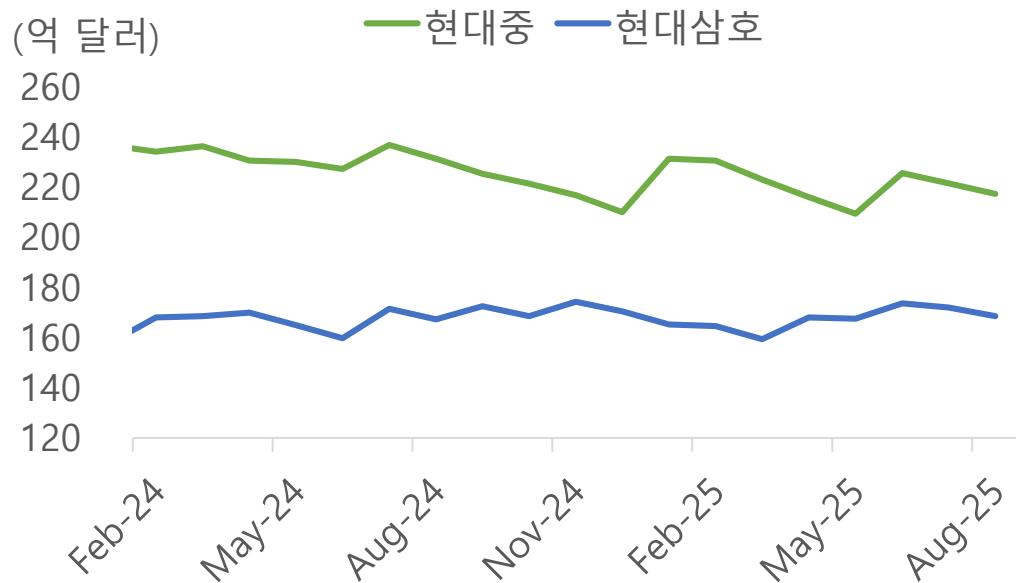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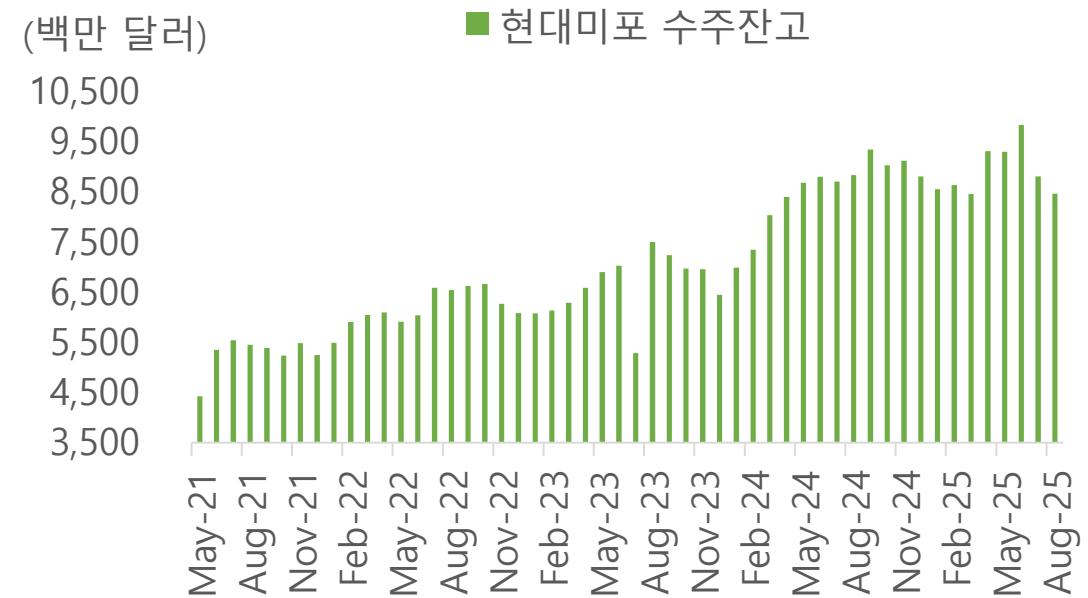
현대중공업 그룹 수주잔고 변화

- 현대중공업 그룹의 수주잔고는 둔화
- 카타르 프로젝트 종료되면서 중국 조선소가 지배한 선종에서 수주 경쟁해야 하는 부담
- 중형 선박 시장은 이미 중국 조선업이 지배

현대중, 현대삼호 선박 수주잔고 비교



현대미포조선 수주잔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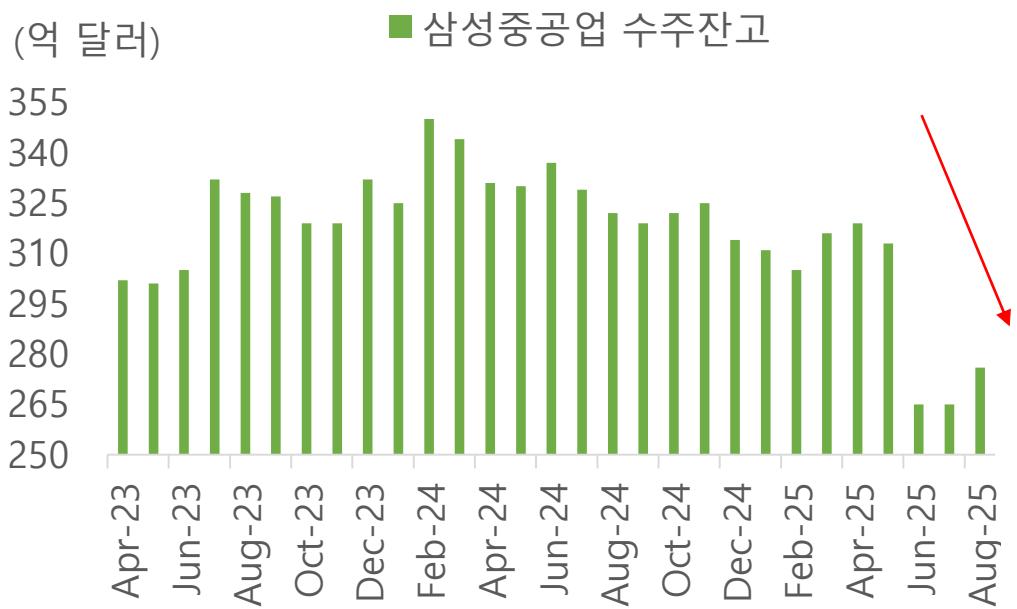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수주잔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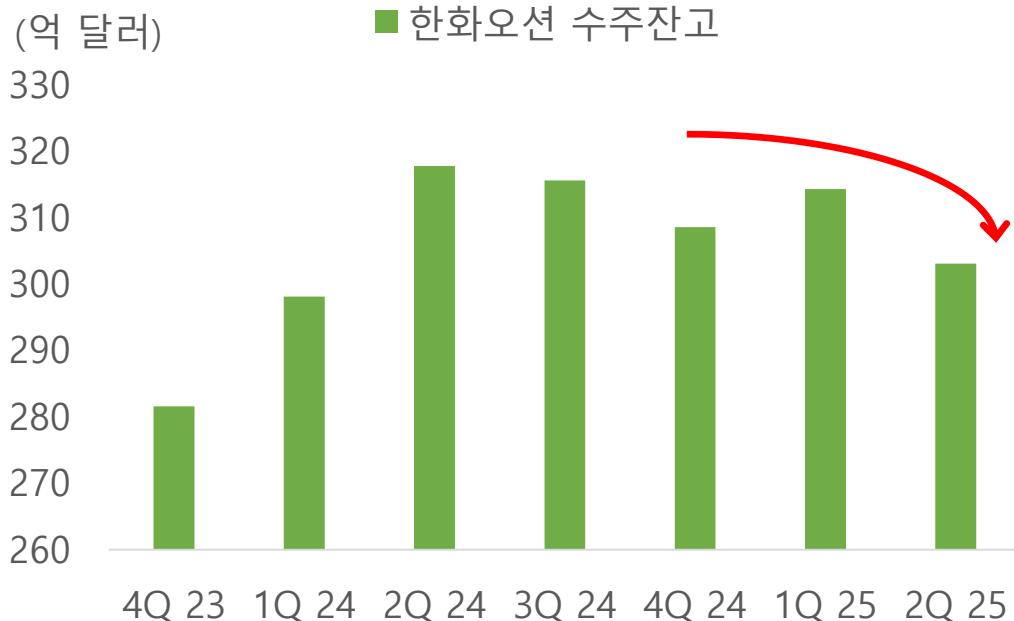
- 한화오션 수주잔고 1년 동안 정체
- 삼성중공업 수주잔고 최저 수준으로 감소(러시아 계약 취소로 수주잔고 20% 감소)
- 한국 조선업이 시황을 읽지 못하고 LNG선에만 집중하는 사이 중국의 수주시장 영향력 상승

삼성중공업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한화오션 수주실적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 조선소의 부활, 가격 경쟁 치열해질 것

- 사라졌던 룽성조선, 웨하이 삼진, 헝리(STX대련) 조선소 부활
- 헝리조선(STX대련)은 MSC에게 2만TEU급 이상 28척 전량 수주
- 최근 3년간의 급격한 선가 상승은 중국 조선업 부활의 계기

Rongsheng makes comeback as SPS Shipyard with Economou in for up to 14 bulkers

Sam Chambers · November 10, 2022



Nov 22, 2022 05:59 AM

BUSINESS

Exclusive: STX Dalian Shipyard Resumes Operation After Hengli Takeover

By Li Rongqian and Han Wei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중국 조선소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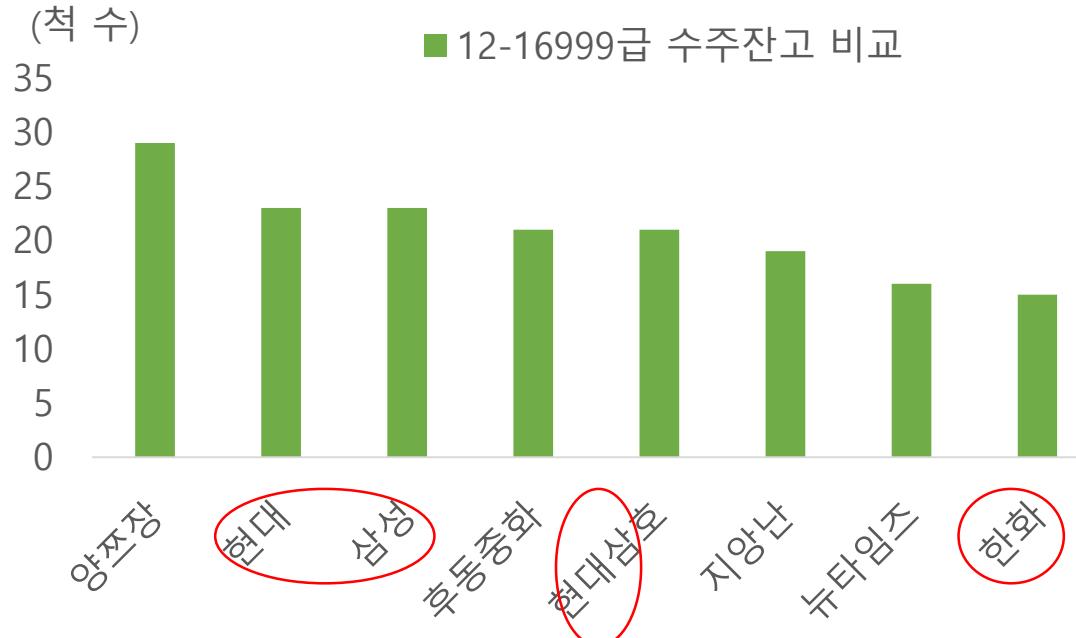
- 10여년전 부도처리되었던 헝리 조선이 2만TEU급 이상 수주잔고 1위 조선소로 도약
- 한국의 주력 시장이었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 중국 조선소 진입
- 선주들에게 신조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낮은 선가이며 기술적 차별화는 의미가 크지 않다

2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12-16999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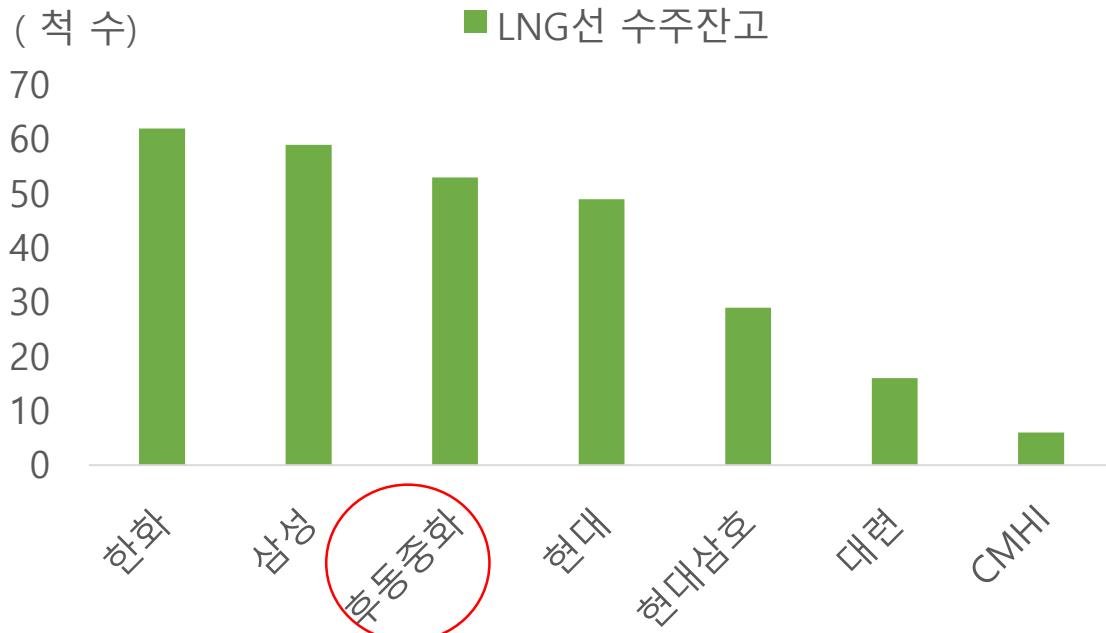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탱커와 LNG선 시장에서도 중국 조선소 위상 높다

- VLCC급 초대형 유조선 시장에서 중국 조선소 진입 증가
- 후동중화조선소는 LNG선 수주잔고 3위 조선소로 부상
- 올해 말이면 후동중화조선소의 LNG선 수주잔고 1위로 올라선다

LNG선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VLCC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IV. LNG 운송사업 돈이 되지 않는다

수요의 감소
공급의 급증



IV-1. 미국 LNG를 사줄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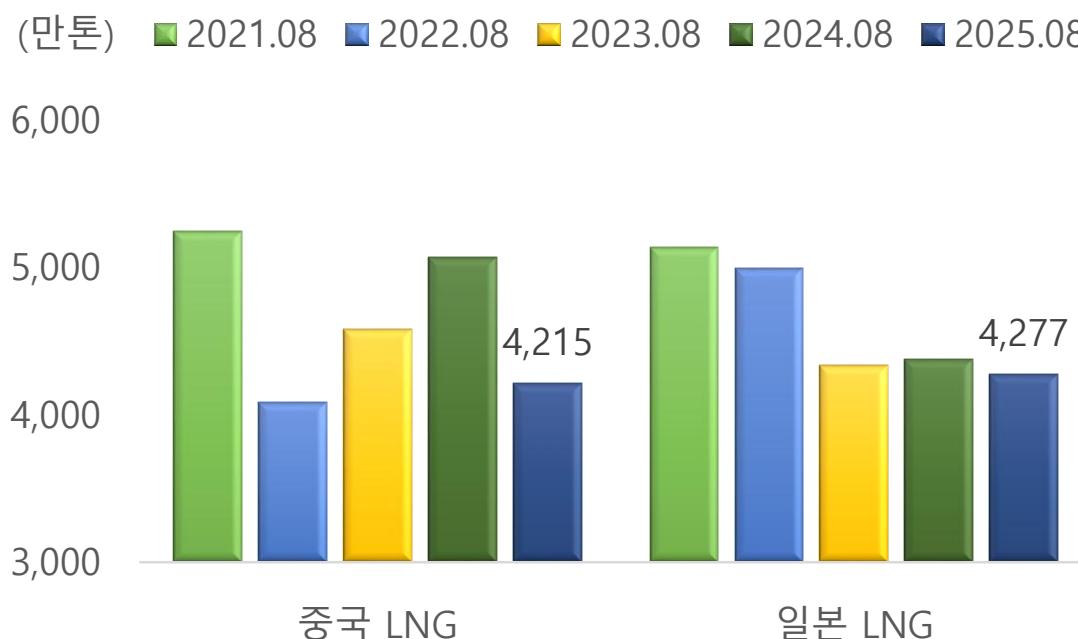
수요의 감소



중국과 일본은 LNG 수입 1위 자리 서로 양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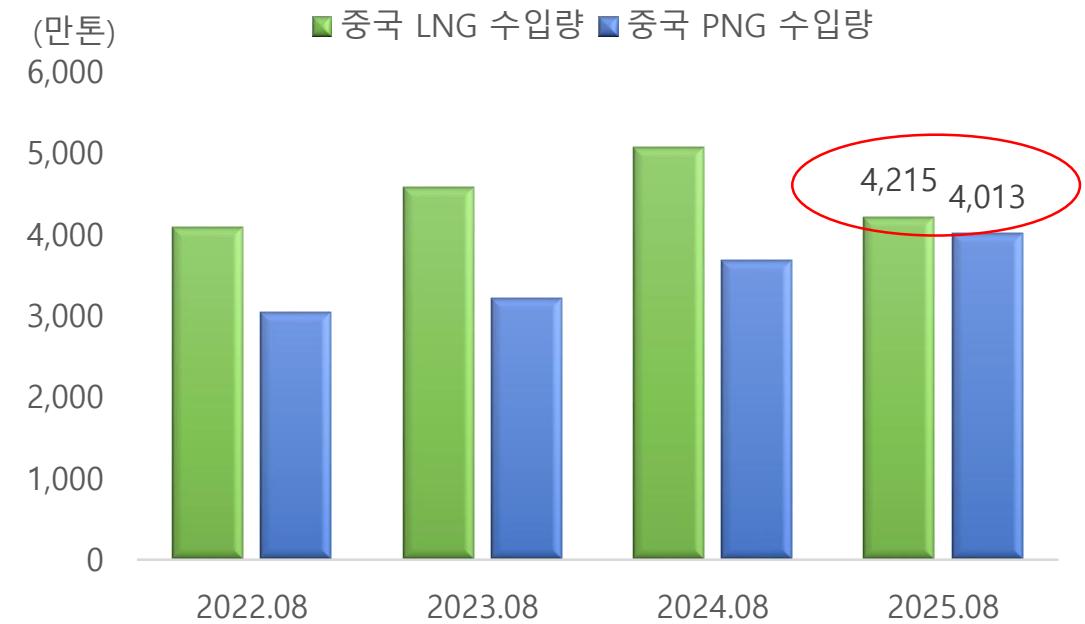
- 중국과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수입량 감소
- 중국의 러시아 PNG 수입량은 LNG 수입량 수준으로 증가
- 아시아로 향하는 LNG 물동량은 둔화되고 있다

세계 LNG 수입 1, 2위 국가의 LNG 수입량 감소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의 러시아 PNG 수입량은 LNG 수입량 수준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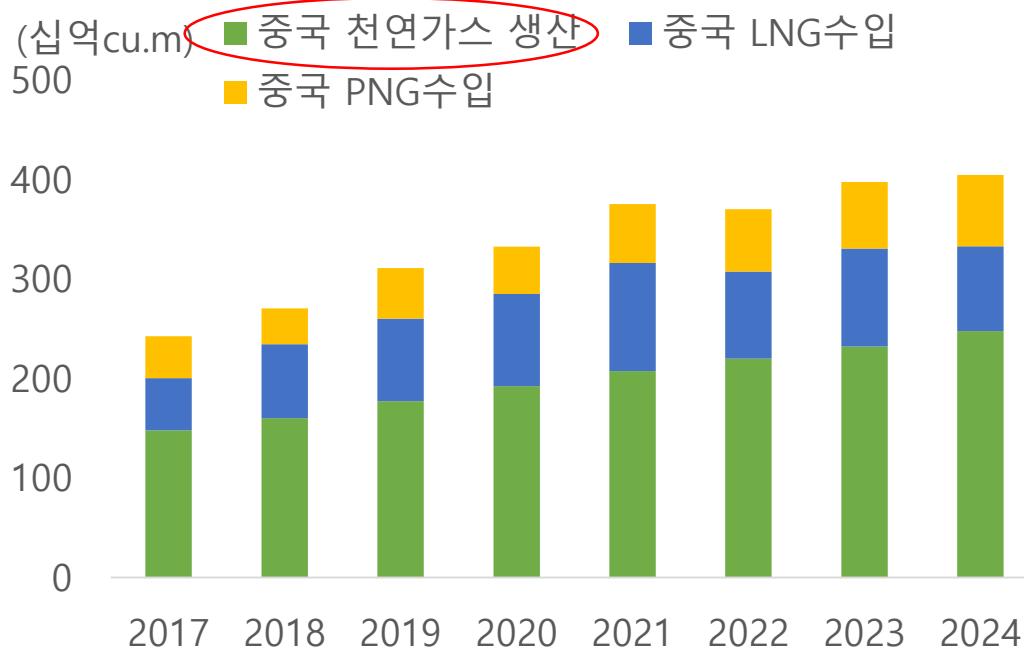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 세계 4대 천연가스 생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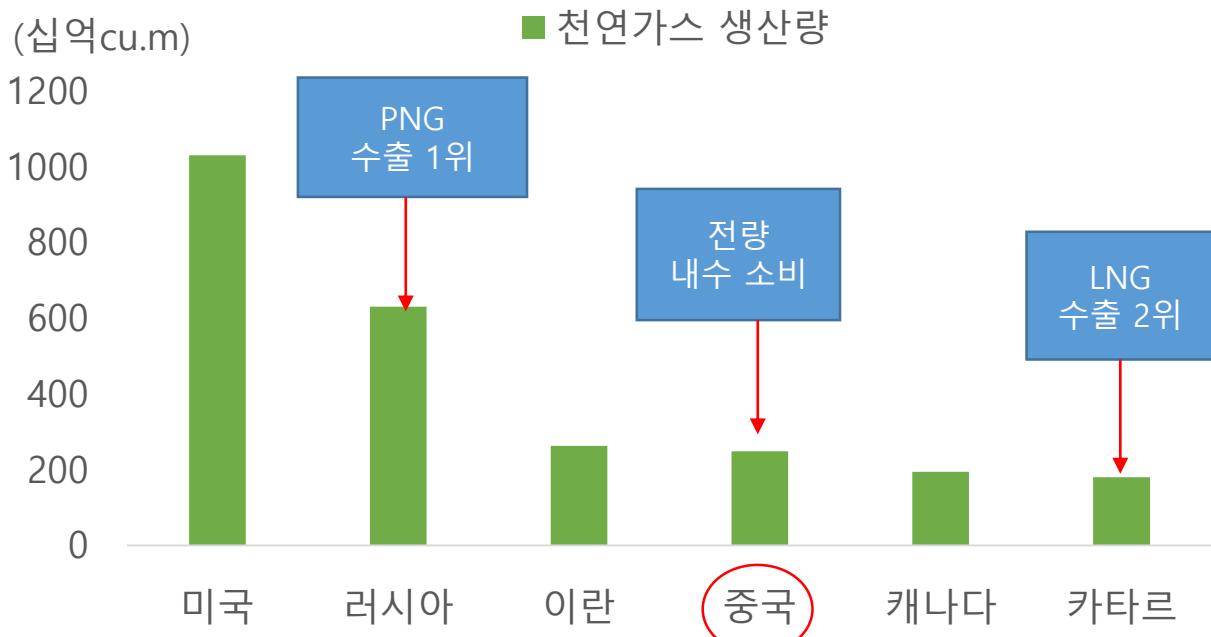
- 중국의 자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증가
- 내륙의 사천성과 남중국해에서 최대 규모의 신규 가스전 개발 추가
- 중국은 자국 천연가스, 러시아 PNG, 석탄과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자국 에너지 안보 강화에 주력**

중국 천연가스 자국 생산량과 해외 수입량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국가별 천연가스 생산량 비교(2024)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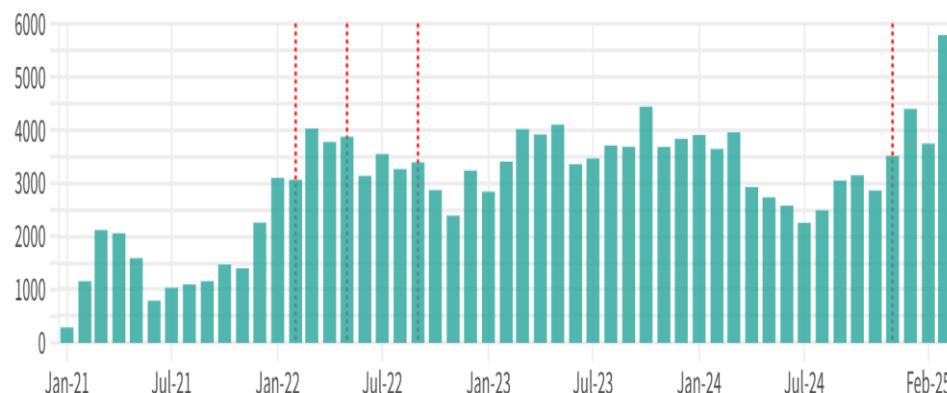
글로벌 LNG 물동량 둔화 전망

- 유럽에서는 미국 LNG 수입 늘겠지만 **아시아 LNG 수요 감소 더 크다**
- 일본과 대만에서는 원자력 발전 재가동 이슈로 LNG 수요 둔화 추세
- 아시아 LNG 물동량 감소는 미국 LNG 수요 상실과 LNG선 용선계약 수요 둔화 의미

유럽 연합의 미국 LNG 수입량 비교

EU imports of US LNG

Thousand tonnes | Jan-2021 until Mar-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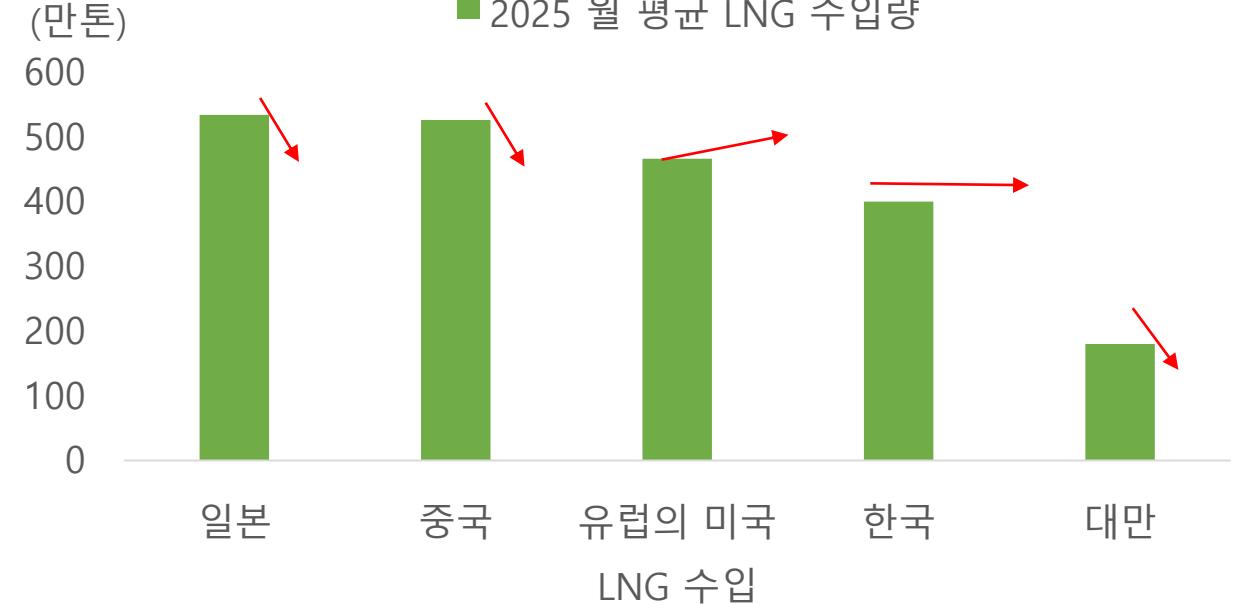
Source: CREA analysis.

Dotted lines indicat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on 24 Feb 2022, end of flows through the Yamal pipeline, NordStream pipeline and Ukrainian transit pipeline respectively.



국가별 LNG 수입량 비교

■ 2025 월 평균 LNG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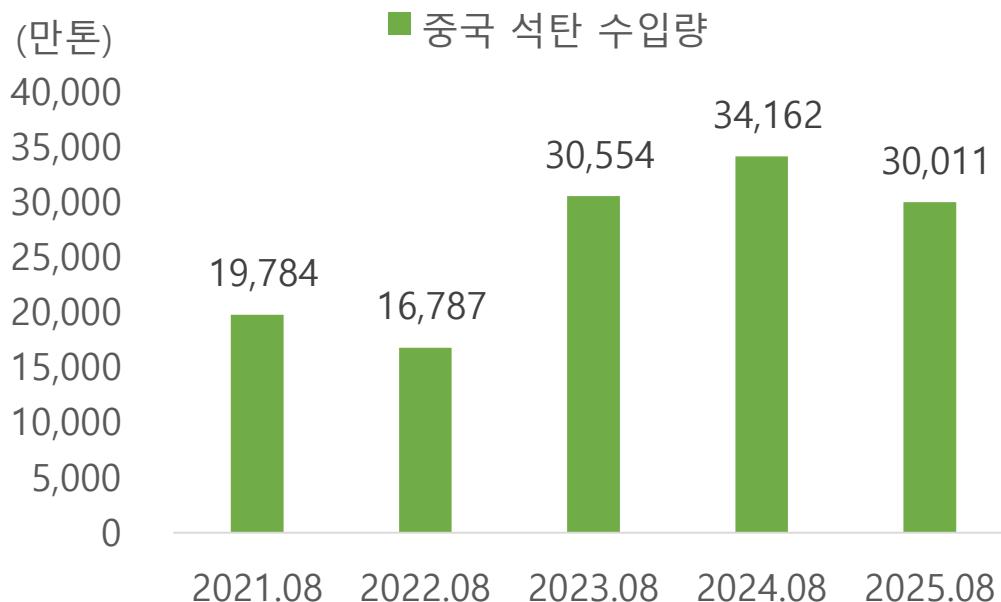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 석탄수요 다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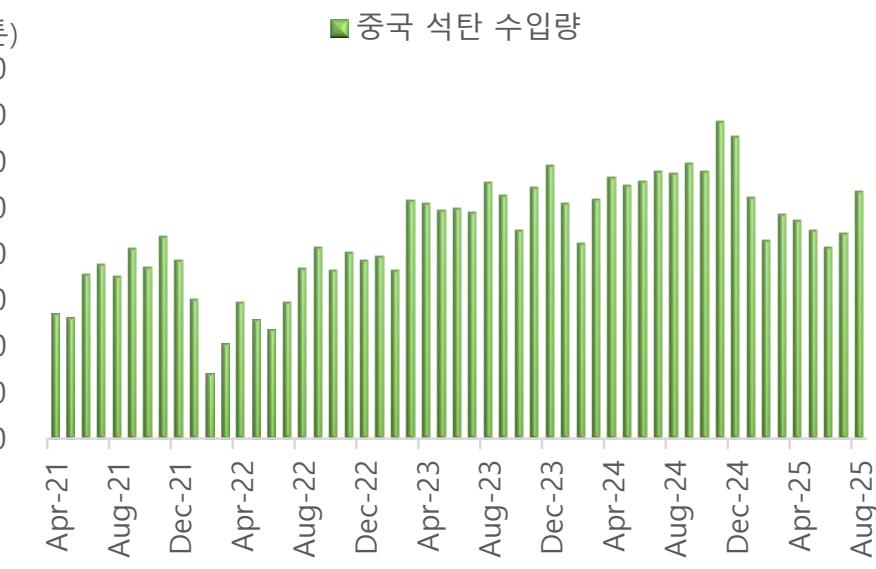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확보 불안정으로 중국은 석탄 발전 수요 증가
- 2023년 이후 3년간 석탄 수입량 대폭 증가
- 2017년 중국의 석탄 발전이 LNG발전으로 전환되며 시작된 LNG 싸이클은 일단락**

최근 3년간 중국 석탄 수입량 급증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 석탄 월별 수입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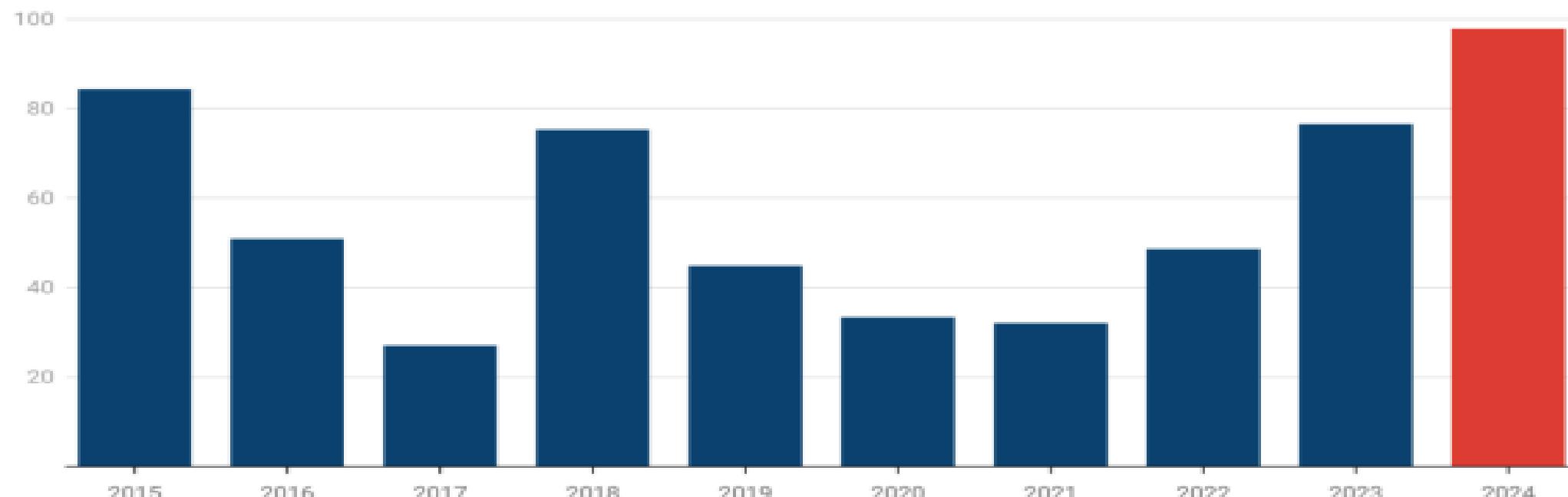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 석탄 발전 투자 10년래 최대치

China's construction of new coal-power plants reached a 10-year high in 2024

New and resumed construction on coal plants in China between 2015-2024 (gigawatts)



Source: China Coal Power Biannual Review H2 2024

CarbonBrief
CLIMATE INSIGHTS

New and resumed construction of coal capacity in China between 2015-2024, gigawa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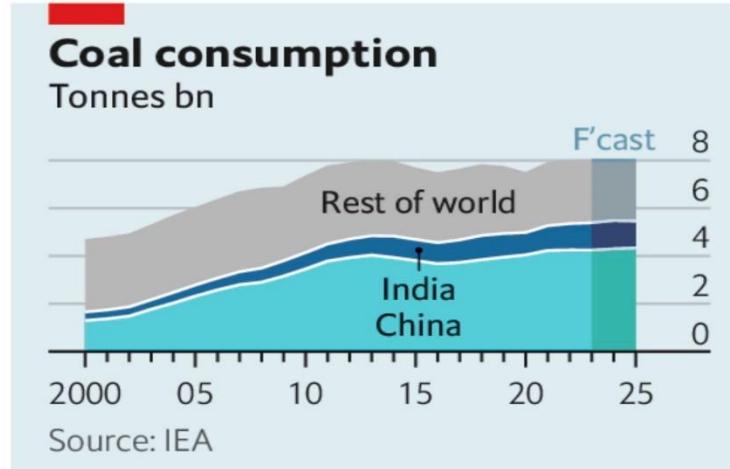
Credit: GEM and CREA.

LNG 시황 둔화와 라이벌 석탄의 부활

Leaders

Climate finance The struggle to kill King Coal

*Financial tools alone cannot stamp
out the world's dirtiest fuel*



IN NOVEMBER 2021, at a UN summit in Glasgow, the world's leaders declared to much fanfare

China's new coal plant approvals surge in 2022, highest since 2015 -research

Reuters

February 27, 2023 10:01 AM GMT+9 · Updated 3 months ago



A coal-burning power plant can be seen behind a factory in the city of Baotou, in China's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October 31, 2010. REUTERS/David Gray/File Photo

SINGAPORE, Feb 27 (Reuters) - China approved the construction of another 106 gigawatts of coal-fired power capacity last year, four times higher than a year earlier and the highest since 2015, driven by energy security considerations, research showed on Monday.

IV-2. LNG선 공급과잉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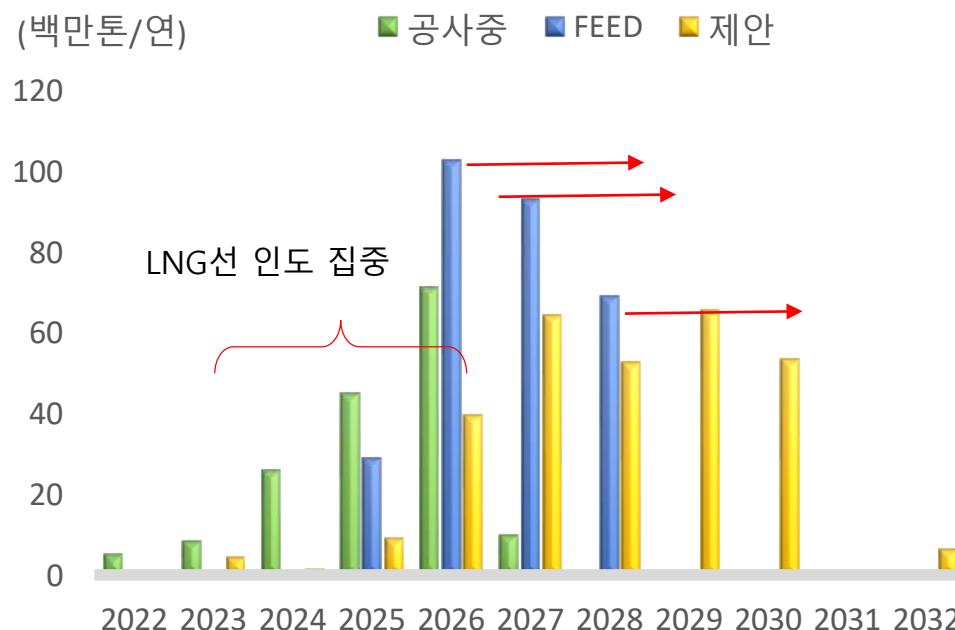
공급의 급증



LNG선박 이미 공급과잉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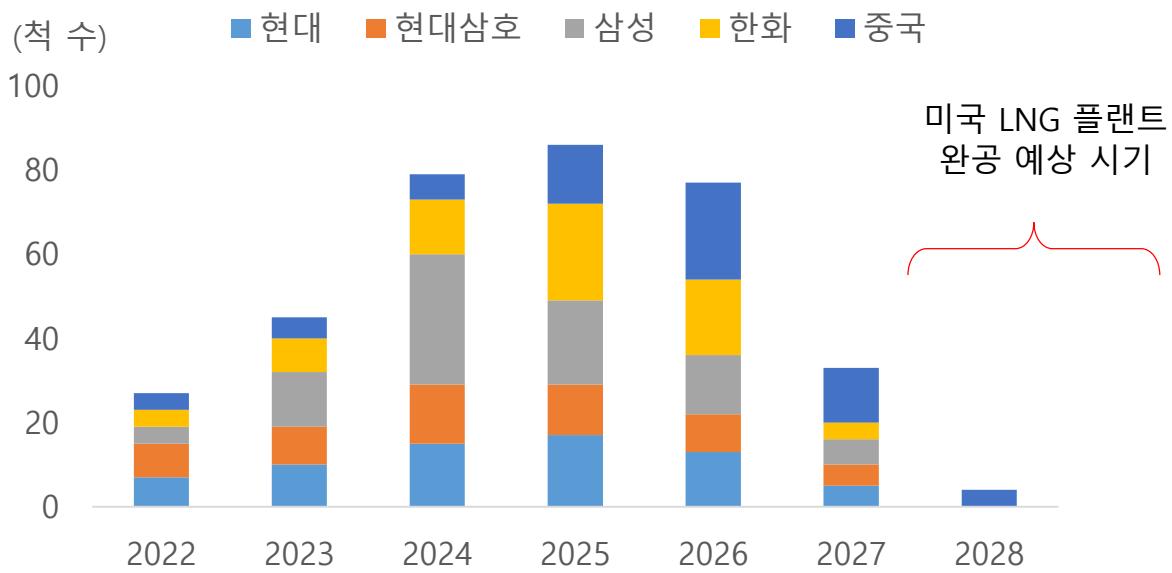
- 조선업계 정통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육상 LNG 플랜트의 1-2년 인도 지연은 일상적인 요소
- 미국의 계획된 LNG 액화플랜트의 실질적인 완공 시기는 2029-30년 사이로 전망
- LNG 플랜트 완공되기 이전 2023-26년 LNG선 대량 인도

미국 LNG 액화플랜트 완공 시기 비교: 실제로는 2-3년 지연될 것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LNG선 인도량 2023-2026년 집중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LNG선 가격 하락 추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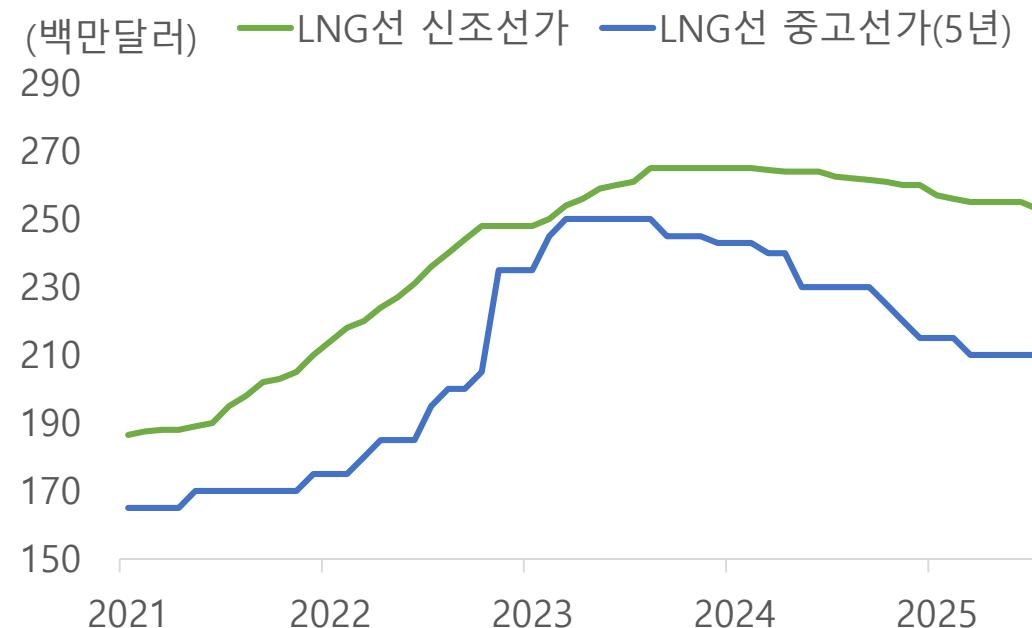
- LNG선 가격은 2023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 전환
- 2024년 하반기 북반구의 동절기에 LNG선 운임은 1만달러 붕괴 -> LNG선 공급과잉 우려 영향
- **지금의 운임과 선가를 고려한 LNG선 투자회수 기간은 45년 수준으로 급등**

공급과잉 우려로 LNG선 용선료 심한 약세 지속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LNG선 가격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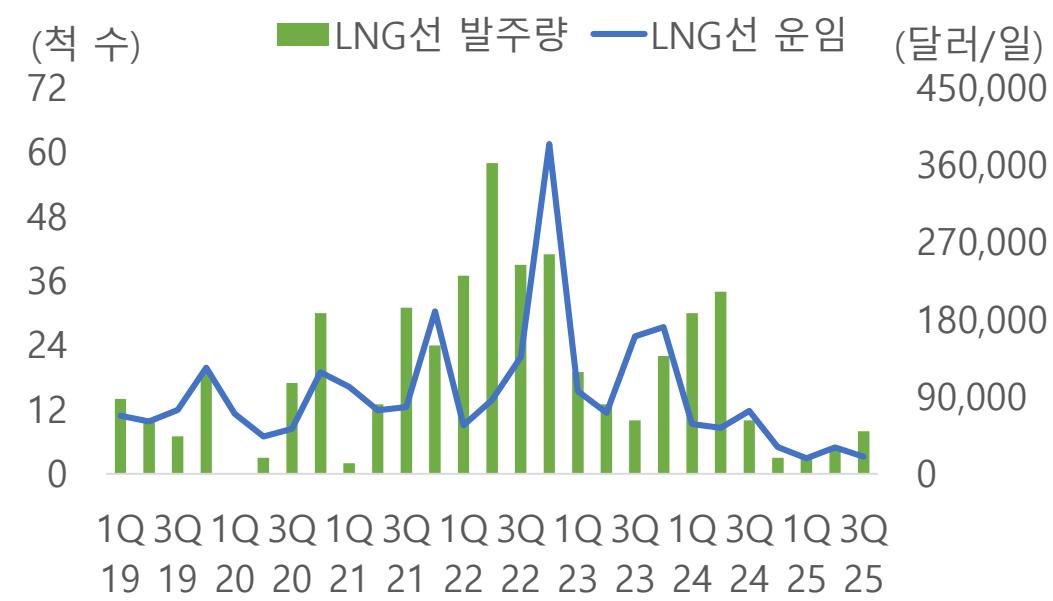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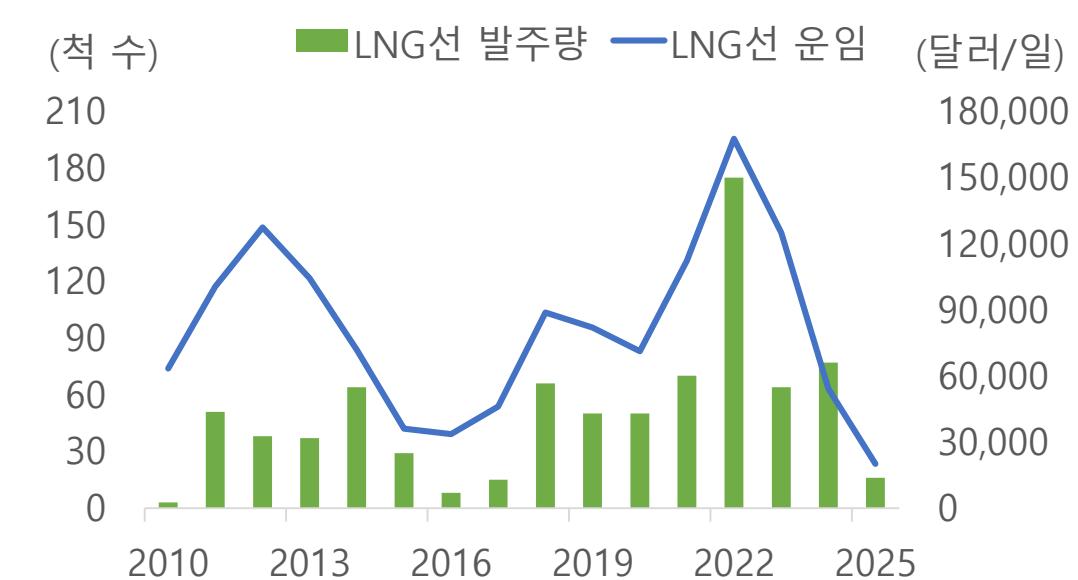
LNG선 시장에서 운임의 중요성

- 역사적으로 LNG선 운임 오를 때 선박 발주 증가 (모든 선종에서 동일)
- 카타르 LNG 프로젝트 역시 운임 상승 시기에 진행
- LNG선 공급과잉 우려와 운임 약세로 LNG선 용선계약 수요 부진 지속

LNG선 운임과 선박 발주량 비교(분기)



LNG선 운임과 선박 발주량 비교(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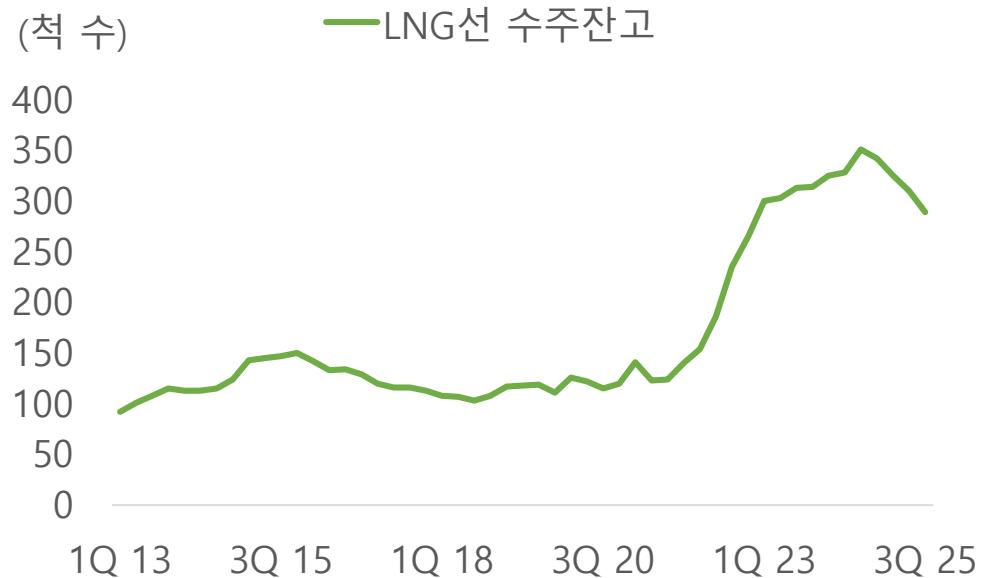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LNG선 수주잔고 1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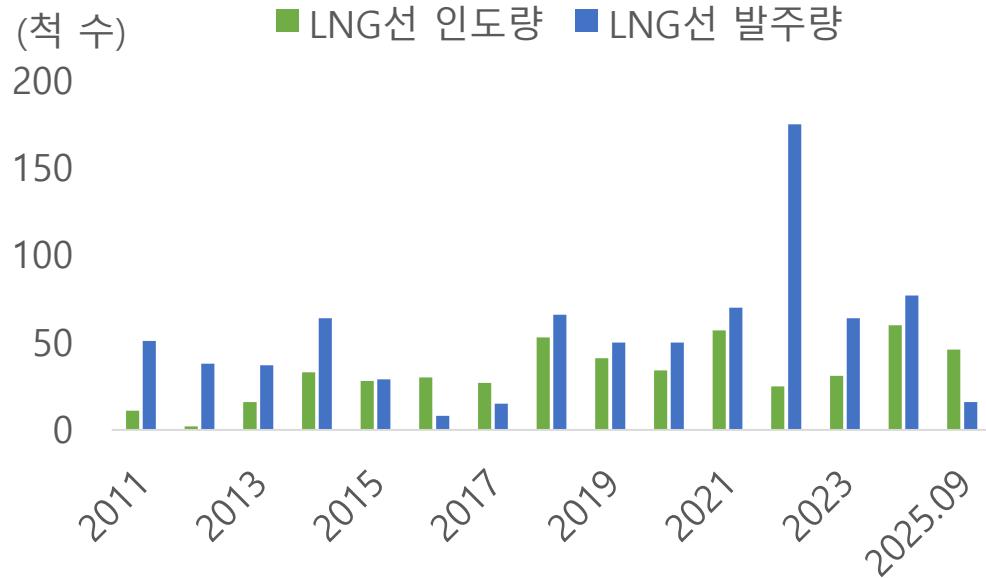
- 카타르 프로젝트 종료(2024.06) 되면서 지난 1년간 LNG선 수주잔고 18% 감소
- LNG선 발주량은 인도량 하회
- LNG선 수주잔고 줄수록 조선소의 목소리는 작아진다

카타르 프로젝트 종료와 LNG선 수주잔고 감소세로 전환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LNG선 발주량은 인도량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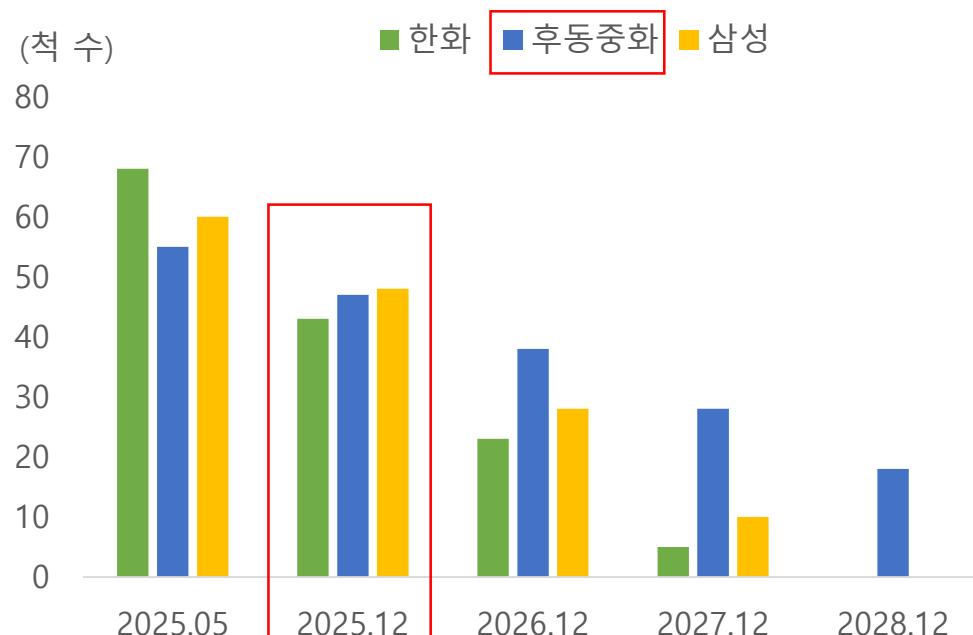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곧 후동중화조선 LNG선 수주잔고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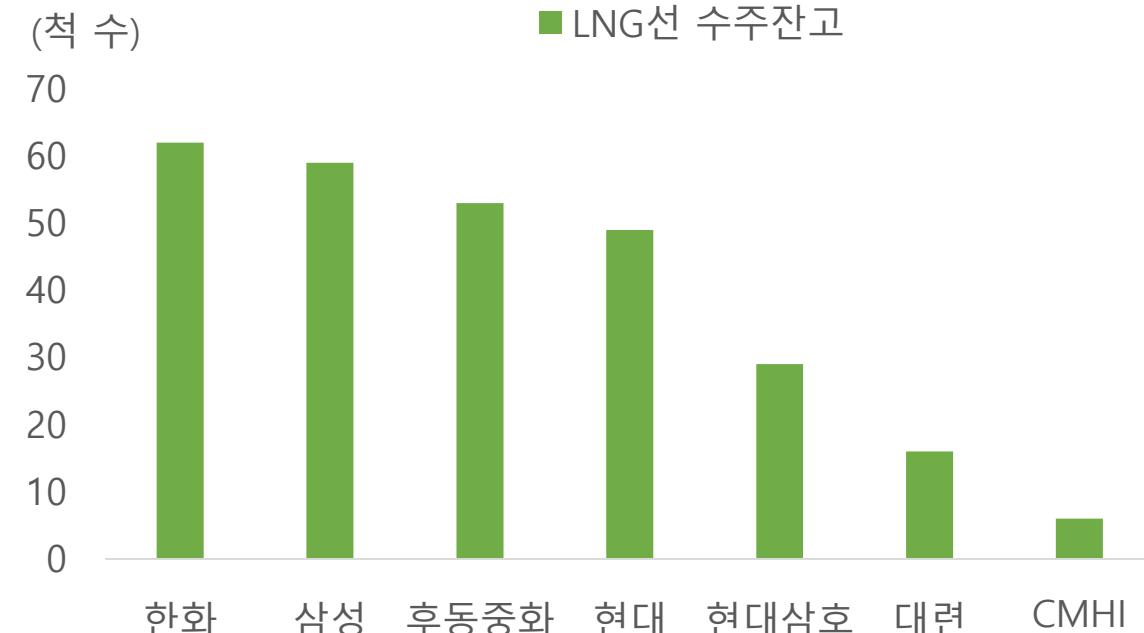
- 2025년 말이 지나면 후동중화 조선소의 LNG선 수주잔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
- 선박 건조 속도 차이로 후동중화조선소 수주잔고 순위 상승 예상
- LNG선 장기용선 시장 부진으로 LNG선 발주량 증가는 제한적인 상황

연도별 LNG선 수주잔고 변화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LNG선 수주잔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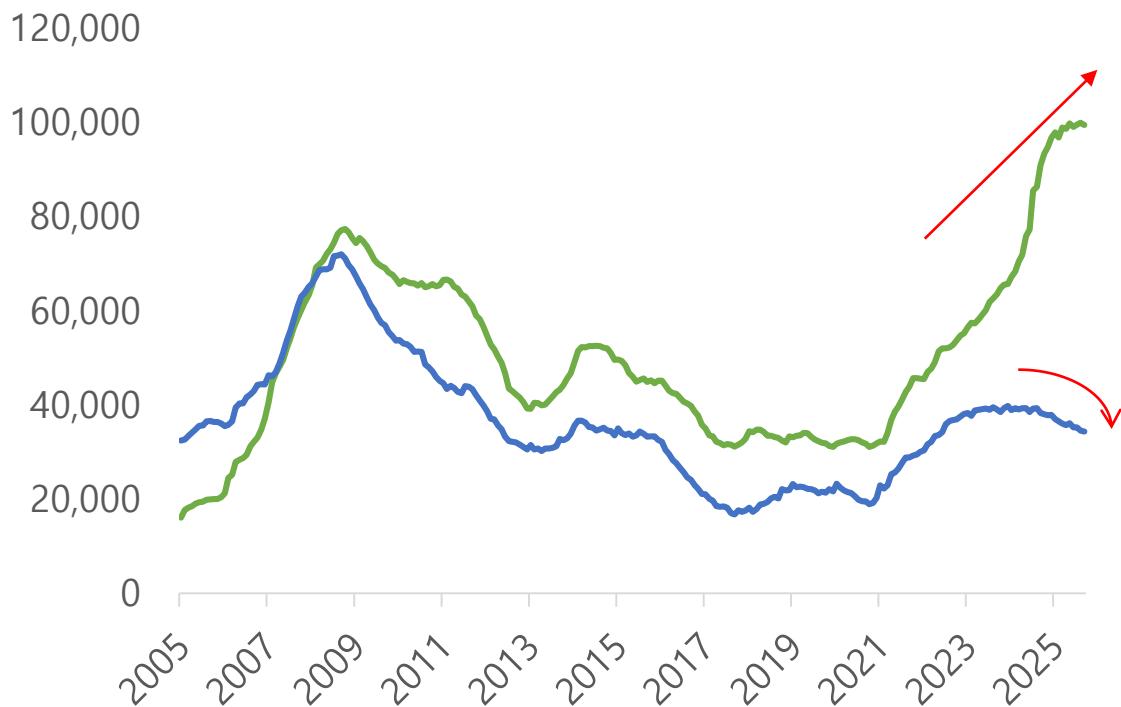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 조선업, 리스크 관리 필요

한국과 중국의 선박 수주잔량 비교(20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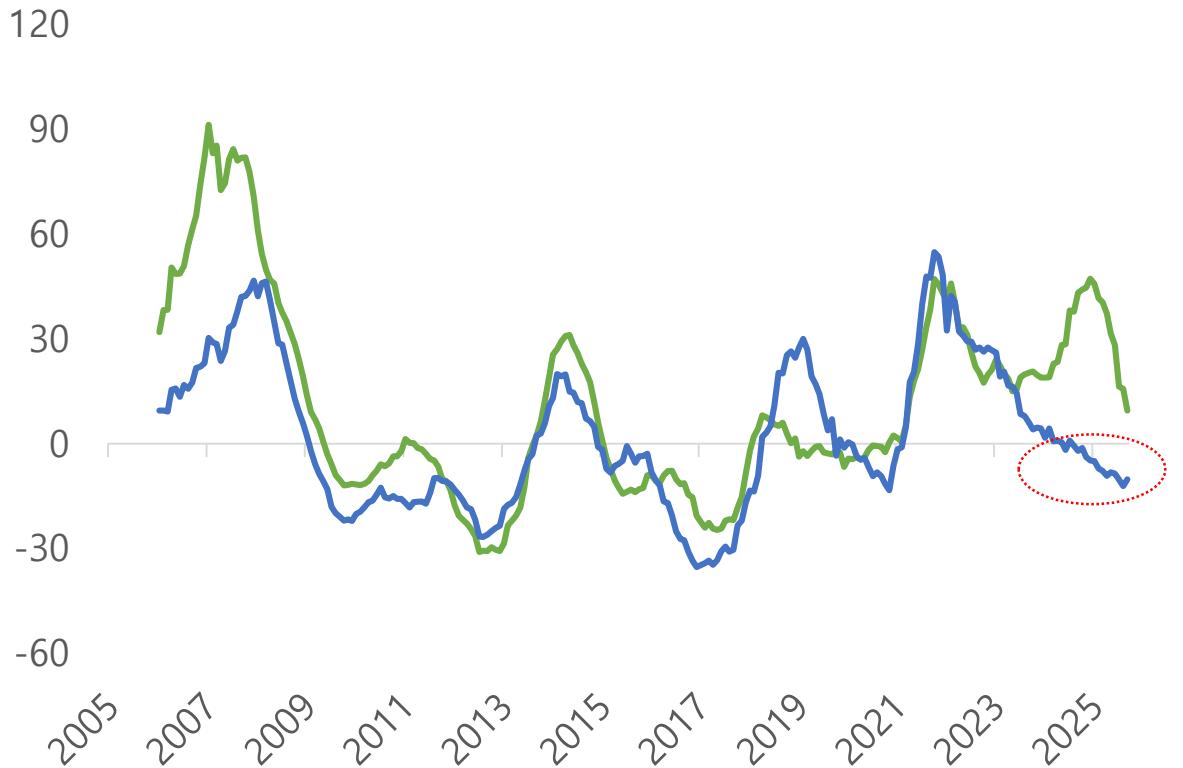
(천CGT) — 중국 수주잔량 — 한국 수주잔량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중국과 한국의 선박 수주잔량 증가율 비교 (2025.09)

(%) — 중국 수주잔량 증가율 — 한국 수주잔량 증가율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End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